

성도의 빛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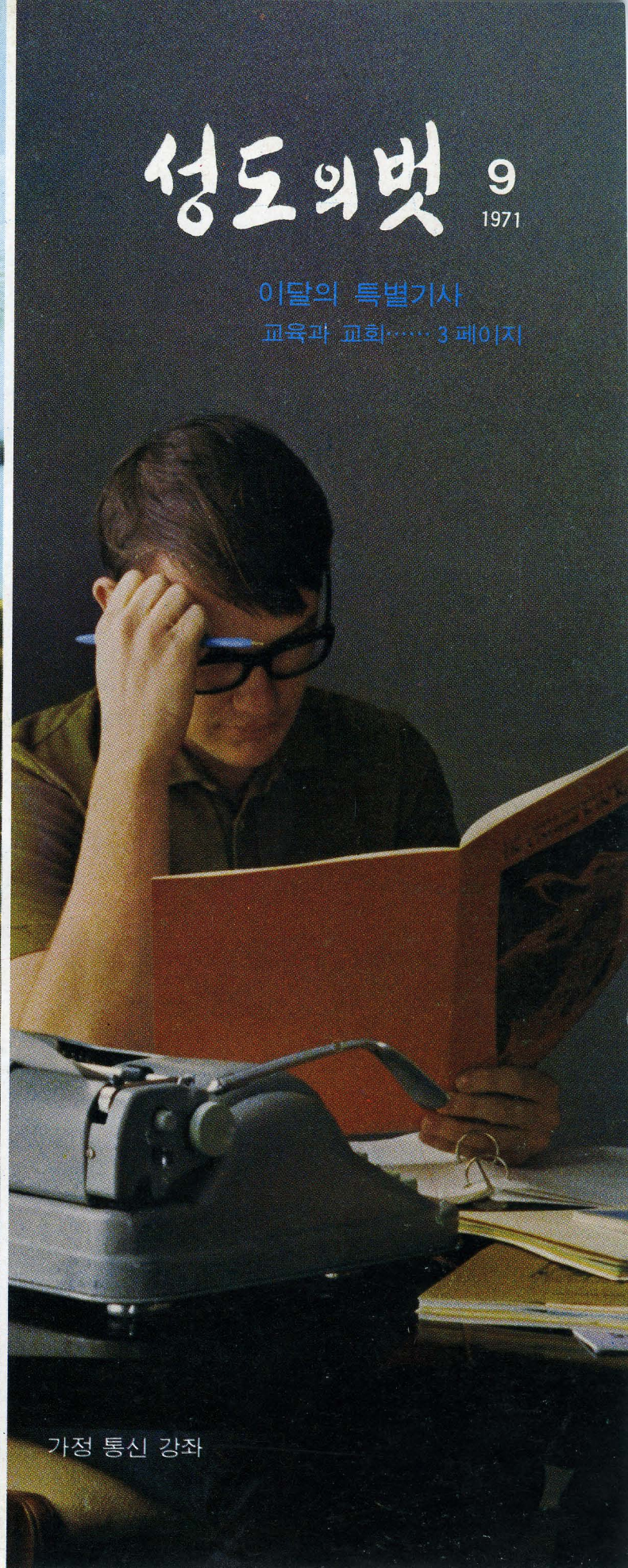
1971

이달의 특별기사

교육과 교회…… 3 페이지



초등 및 고등학교



가정 통신 강좌

영감의 메시지

스털링 더블류 쉴

12사도 정원회 보조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1년 9월 1일

통권 제74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 (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 찰스 디킨스는 그의 위대한 저서 “두 도시의 이야기”를 빌어 200여년 전의 불란서 혁명의 이야기를 마치 오늘날의 세계에 대하여 말하듯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때였으며 가장 흉악한 때였고, 지혜의 시기였고 어리석음의 때였으며, 믿음의 때였고 불신의 때였으며, 빛의 절기였고 어둠의 절기였으며, 소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으며, 우리는 우리 앞에 모든 것을 가졌고 아무 것도 가지지 못했으며, 우리는 모두 하늘 쪽으로 가고 있으며 동시에 그 반대 쪽으로 가고 있나니……”

극과 극의 상반이 함께 헝클어져 존재하는 오늘날 인류의 복지를 위한 여건이 증대될수록 인간의 불행도 증대되고 인간은 축복의 댓가를 고난으로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열 두달 일년은 이제까지 있었던 어느 때보다도 위대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 열 두달 동안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애기가 태어날 것이며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것들이 발명될 것이며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물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열 두달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우리는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죄를 지으며 더 많은 약과 술과 죄와 영혼을 파괴하는 범법에 말려들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들 개개인의 유산에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생애와 연결할 줄 알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습니다.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에 의치면서 비겁한 죄인의 사생아와 같은 행동은 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선한 행동을 풍성하게 베풀어 우리는 이 해를 최상의 해로 만들어야 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대를 불러 들이고 빛과 의로움과 질서의 시대를 이루며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천년의 평화와 찾아 오게 해야 하겠습니다.

제 7권 제 9호

순서

1971년 9월호

■권두언 : 으뜸이 되는 지식 조셉 필딩 스미스.....	1
교육과 교회 엠 달라스 버넷.....	3
가정을 떠나는 젊은이들 엘우드 아아르 피터슨.....	6
솟아 오르는 복음의 태양 톨린 에프 필라이트.....	8
갈등의 원리 킨 지 맥케이.....	13
지미의 생일 선물.....	15
길 잃은 아이 신디아 챔벌레인.....	16
결정 : 왜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스펜서 더블류 킴블.....	19
■진리의 말씀 :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리차드 엘 이반스.....	20
젊은이에게 부과되는 네가지 과제 빅터 비이 클라인.....	21
저들의 얼굴에 밝은 빛을 벨라 매 라스무센.....	25
나의 음성이 울리리 아이리스 신더가드.....	27
■선교부장 메시지 :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부라운.....	30
■청소년 대회	32

표지 설명 : 이번 호에서는 교회에서의 교육 문제를 취급하여 보았다. 표지는 세계 여러 곳에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학습 활동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대관장단 메시지



으뜸이 되는 지식

대관장 **조셉 필딩 스미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

● 사람은 누구든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식을 탐구하는 욕구를 가졌으며 여러 분야에서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구하는 바가 영적인 것이기를 바라며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은 인류가 이로써 영생을 얻고 그것이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원한 삶으로서의 발전을 인도하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복음의 지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이며 인간이 주 앞에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쟁취하려는 작업에 도구로 써야 할 지식인 것입니다. (몰몬서 9:27, 빌립보 2:12 참조) 우리에게 전달된 계시 중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을 입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성 93:19~20 참조)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본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리와 영 안에서 예배하며(요한 23:24 참조) 그 댓가로 복음의 온갖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계시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내 보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로 들어내 보이시던가 언제까지나 스스로를 숨기시던가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과학자나 철학자에게로 갈 것이 아니라—경전을 상고해야 합니다. 하늘을 나르는 천사에 의한 복음의 회복을 암시한 위대한 요한의 계시를 보면 (계시록 14:6 참조)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이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시록 14:7) 환언하면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의 회복이 시작되므로서 인간은 지금 온 세상에 알

려진 거짓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오 참 하나님, 곧 저들을 지으신 이를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부르사 거짓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자들과 대항하게 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거짓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사야는 저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끈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이사야 40: 18, 28)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말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갖지 못한 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정지으려 하는가? 어찌하여 그대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이하로 대접하는가? 그대를 아직도 알지 못하였나? 아직 듣지도 못하였는가? 영원하신 주 하나님과 온 세상의 창조주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사 모두를 다스리시고 세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함을.”

교리와 성약 20편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를 조직하라는 지시가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는 여기서 몇가지 구원의 근본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계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제심을 아나니,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 영세 무궁토록 불변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교성 20: 17) 교리와 성약 93편 12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다 입으신 것이 아니라 점차로 조금씩 얻었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과 하늘의 온갖 권세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계시에는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와 같이 “...충만한 진리 곧 모든 진리를 받았다 하였느니라.”(교성 93: 26) 또한 계시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빛과 진리를 얻으며 점차로 진리 가운데 영광스러움을 입어 마침내 모든 것

을 알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모두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것과 같이 만져질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갖고 계십니다.(교성 130: 22)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며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식을 결비하신 완전하신 분이며 온갖 신앙, 권세, 공의, 자비, 심판,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온전한 온갖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신앙에 관한 강의¹를 통하여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언자는 또한 우리가 영생을 쟁취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확고 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임을 말씀드리며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율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회복된 것을 감사하며 교회의 회원인 우리들은 그분이 개체성을 가진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결코 속된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바 “율법의 모체요 우주를 떠도는 안개와 같은 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영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두 발전하여 그분과 같이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며 모든 권능을 가지셨고 그분의 발전이 그분 개인의 이해나 지식의 습득에 있지 않고 오직 그의 왕국을 넓히는데 있음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 영원한 복음이 진실함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이 말일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이 땅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우도록(다니엘 2: 44 참조) 말씀을 전하셨고 그의 온갖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개개인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구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1.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 학교에서 전한 일곱 강의. (교리와 성약 1921년판에 까지 수록되었음)

교육과 교회

엠 달라스 버넷

교회 잡지 편집인 보

● 마치 험란한 비단에 황금 수실이 짜이듯 교회가 조직된 1830년 이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의 내면에는 교육의 실이 탄탄하게 짜여졌다.

교회가 건립한 최초의 교회학교는 1833년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세운—예언자 학교였다. 나부에서는 1840년에 대학교 건립인가가 일리노이주의 법으로 허가되었다. 1850년에는 쏘트레이크 계곡에 성도들이 도착한지 불과 삼년만에 데세렛 대학교가 세워졌다. 이 세 학교가 말하자면 교회조직 초기 25년만에 교회가 건립한 정규 학교의 표본이라 하겠다.

교회의 교육 시설은 현재 사실상 전세계의 성도들에게 그 손을 뻗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 교육이 정규 교육의 체제로 전세계에 가장 넓게 퍼져있기는 하지만 일반 교육도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에 의하여 발전되었을 가능성도 사실 이상으로 명백한 것이다.

말일성도의 청소년을 위한 종교 교육은 세미나리와(국민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함) 학원(대학생을 대상으로 함)이라는 체제로 대표된다. 교회의 일반 교육 프로그램도 국민학교, 중학교, 초급대학, 정규 대학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학교에서는 종교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취급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학생 수와 학교 교수진 및 간부의 수는 놀라울 만큼 성장했지만 교회의 교육 근대화 물질은 불과 1년여전 교회 교육 위원장 제도를 재정비 시키면서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교회의 교육 관리 정책은 교회 전체의 교육 활동을 조직된 체제 하에 급격한 성장으로 유도하게 하였고 이미 다른 여러가지 프로그램에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현재로는 널 에이 맥스웰이 교회 교육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를 중심으로 세미나리와 학원은 죠 제이 크리스찬슨이 담당하고 있고 학교와 대학교는 케이드 에이치 비슬리가 디 에프 앤더슨이 재정과 일반 사무를 맡고 있다.

교회에서 발전된 교육 제도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체의 전망과 실태를 조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금 70—71년도 학기에 교회는 오십 팔개의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그리고 멕시코, 칠리, 뉴질랜드, 통가, 타히티, 서부 사모아, 피지, 아메리카 사모아 등지에 일곱개의 초급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에 등록된 학생 총 수는

13,220명이다. 내년도 등록 계획 학생 수는 17,000이며 페루와 볼리비아에 새로 두 학교를 지어 운영할 방침이다.

보다 정도가 높은 교육면에서 보면 교회내의 학원 수가 넷으로 되어 있다. 유타주 푸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의 학생 수는 25,000이며, 하와이주 레이에 있는 하와이 교회 대학의 학생수는 1,300 아이다호주 렉스버에 있는 릭스 대학은 학생이 5,100명, 그리고 쏘트레이크 시에 있는 디이 에스 실업 대학의 학생 수는 팔백여가 된다.

교회의 교육 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과 수를 가지고 있는 곳은 등록 학생수 176,000의 세미나리와 학원 프로그램이다. 10년전인 1960—61년도 학기의 학생 수는 67,671명이었다.

교회가 교회 회원을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애쓰는 데에는 적어도 세가지 중요한 목적을 앞세운다. 특별히 순서를 말할 수는 없으나 그 첫째의 목표가 교회의 모든 자녀에게 합당한 초등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목표다.

맥스웰 교육 위원장은 학문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필요 사항이며 기초 교육이 없이는 개개인은 복음 안에서의 발전을 기하기 어

교회 학교

1. 하와이 교회 대학 2. 타이티 3. 미국령 사모아 4. 웨스턴 사모아 교회 학교 제도 5. 통가 교회 학교 제도 6. 피이지 7. 뉴우 지일란드 교회 대학 8. 칠레에 있는 교회 학교 9. 멕시코에 있는 교회 학교 10. 부리감 영 대학교, 리스 대학, 말일성도 실업 대학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교회 회원은 기초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허가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합당한 교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던지 기타 어린이의 훈련과 교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 하의 말일성도를 위해서 교회는 국민 학교 내지는 중학교의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두번째의 목표는 말일성도 청소년의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 훈련이다. 특히 브리감 영 대학교가 세계적인 학교로 발전 성장함에 따라 이 분야에 있어서 교회는 커다란 약속을 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를 통하여 대학에 적을 둔 말일성도의 수는 200,000여명이며 교회가 준비한 시설로는 32,000명의 학생 밖에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는 맥스웰 교육 위원장의 말씀이다. 그는 이 연령층의 회원의 수가 가장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다고 부연한다.

“교회가 세워진 곳에 일일이 대학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 하지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관장단의 형제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세미나리와 학원 설립의 길을 모색하라고 당부하셨다고 봅니다. 이로서 교회는 종교 교육을 마련하며 전세계의 고등학교와 대

학교 학생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제삼의 목표를 유발시킨다. 즉 제삼의 목표란 바로 정규 종교 교육이다. 이에 관한 교회 총관리 역원의 정책은 회원의 가정과 선교 사업과 스테이크를 돕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교회 회원이 있는 전 지역에 세미나리와 학원시설을 증강하는 것이다.

다른 교회의 분야에 있어서의 성장과 영리를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미나리와 학원은 전세계의 회원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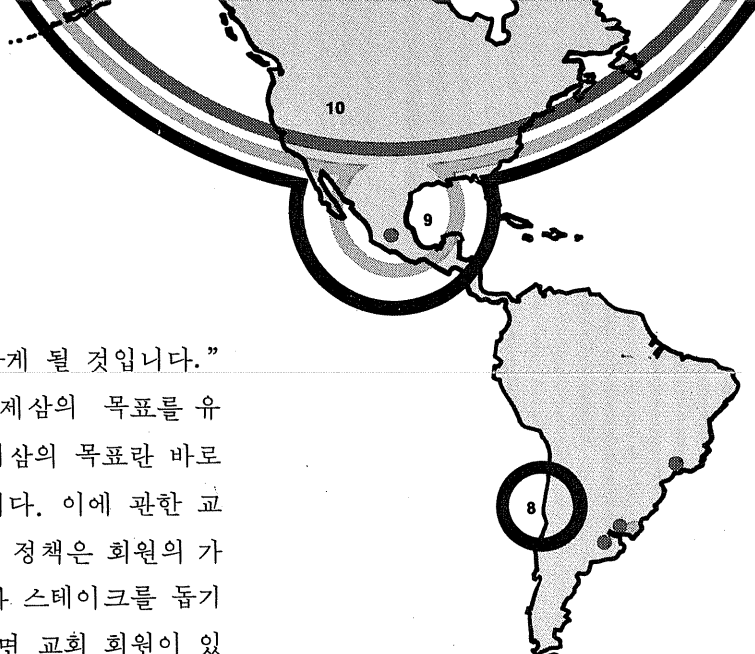
미국의 중서부와 뉴잉글랜드에서 실시된 세미나리 가정 학습의 효율성 실험에서 이것이 성공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현재로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지역,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극동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을 굳히고 있다. 이러한 통태는 점차적으로 전세계의 고등학교 연령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정기적인 일상 종교 교육 및 훈련을 받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 학습 프로그램은 개인개인에게 공과 유인물을 마련해 주며 와드나 지부의 지시를 받는 교사와의 주례 모임, 그리고 스테이크나 교구의 지시를 받는 교사와의 월례 모임을 갖도록 되어 있다. 이 마지막

모임은 세미나리에 고용된 전임 관리자에 의하여 관리되며 청소년들이 다른 세미나리 학생들과 접촉하므로써 사회와의 연결을 갖도록 계획한 모임이다. 나아가 자의로 봉사하는 와드나 지부의 교사는 이곳에서 지도와 도움을 준다.

말일성도가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에 시선을 돌이킬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첫째의 문제가 자기의 요구와 흥미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으로서라면 어떤 종류의 훈련을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에게 대학에서의 훈련만이 인생을 준비하는 최상의 방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으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어디로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자못 심각하다. 교회는 대학생들에게 가능하다면 거주지 근처에 있는 대학에서 처음 2년 동안의 훈련을 쌓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





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교회 대학에 전성도들을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학에 진학하려 해도 시설이 충분치 않은 곳의 말일성도를 위한 학원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맥스웰 교육 위원장은 이러한 특별한 문제를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구세주께서 의도하신 것은 저들 젊은이를 이 세상과 격리시키자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자는 것(요한 17:15 참조)이었읍니다. 복음의 소망은 세상에 사는 인류를 돕는다는 것이며 일반 사회의 학문의 영향을 받은 어떤 학생에게는 강렬한 종교의 가르침이 있어야 세상과 영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능력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그는 특히 이렇게 강조한다. “교회 회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수립된 정책에 쫓아 정리될 것입니다.”

그는 종교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서 기초 교리의 내용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특히 기초 교리의 개념을 바탕으로 삼으려 하면서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전세계를 통하여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정리하고 있다.

사실상 맥스웰 교육 위원장은 교회 교육이 전세계의 지역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내다보고 있다. “우리는 지도자를 좀 일찍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저들을 위한 훈련의 길을 저들의 고장에서 열어 주던가 교회 대학에서 열어 주어야 하겠읍니다.”

맥스웰 교육 위원장과 그의 측근이 영감의 힘으로 계획한 내용 중에는 교사진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능하고 영적인 교사를 일정한 기간 동안씩 여러 지역에 상주케 하므로써 전세계의 학생들이 그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발전하

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맥스웰 교육 위원장은 강조하여 부언한다.

교육의 체계를 설명하고 교회 교육의 이념을 이야기하면 나이가 늦도록 국민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마오리 소년이 교회 학교에 입학하므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교회 학교에 들어와서야 스스로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된 멕시코 소년의 이야기도 있다.

통계상에 나타난 수치에서는 교회 세미나리 교사의 도움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된 아리조나 인디언 청년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다. 아울러 학원 교사의 도움으로 태도를 바꾼 대학생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통계표에서는 찾아보지 못한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교회 교육의 골수라 할 수 있으니—보다 선한 삶, 보다 강한 간증 등이 그것이라 하겠다. ○

가정을 떠나는 젊은이들

엘우드 아아르 피터슨

● 부모가 세워야 할 목표가 많겠지만 그중 하나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저들이 익숙했던 가정을 떠나 자기들의 생활을 가질 때를 준비하게 하는 일이라 하겠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헤어져야 하고, 멀리 공부를 하러 간다거나 선교사로, 군인으로 떠나거나 직장을 찾아 멀리 가야 하는 경우, 가정과 이별을 하게 된다.

가정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의 계획, 준비,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철저히 정리해야 하며 일생을 두고 준비에 임해야 하되 젊은이가 집을 떠나기 전에 거쳐야 할 몇가지 단계를 고려해 두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돈의 관리를 가르쳐야 하며 돈을 여흥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옷도 사고 학비를 내며 기타 생활에 필요한 곳에 돈을 지출하도록 점차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한다. 적절한 예산을 세우고 일단 세운 예산으로 생활하도록 젊은이들을 훈련해야 하겠다. 자기들이 세운 예산이 낭비로 인하여 미리 바닥이 나서 곤란을 당하게 되거나 절약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을 때 이들은 돈의 참 가치를 금방 배우게 될 것이다.

가정 경비에 연관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요리하는 일, 세탁, 청소 등을 시키므로써 자녀는 남녀를 막론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와 즐거움을 배운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며 일터에 들어서는 젊은이들에게 쏟아지는 제일 큰 불만의 비난은 저들이 일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젊은이가 어떤 일의 경험을 가졌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인내와 끈기로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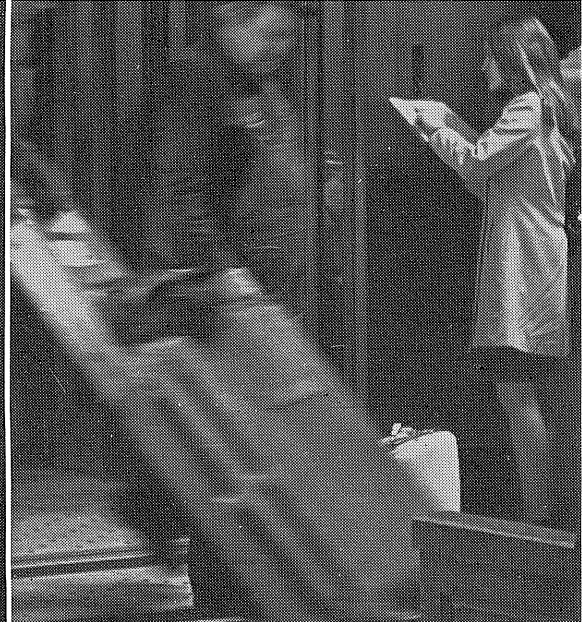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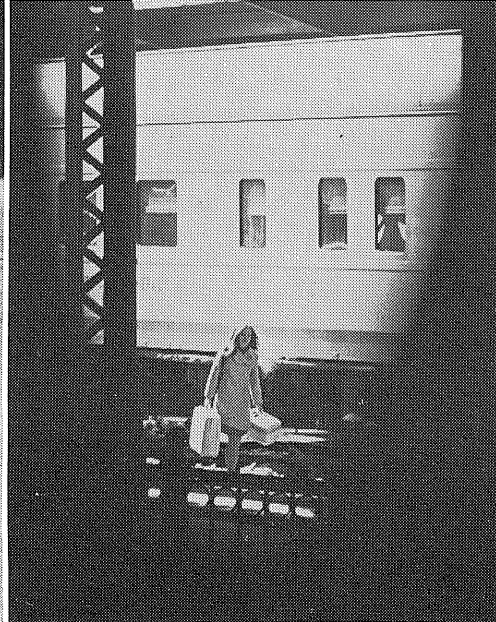
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겠다. 습득해야 할 또 다른 성품은 엄정,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 등이다.

젊은이가 일단 자기의 길을 가게 되면 교회의 표준에 대하여서도 자기대로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저들이 가정을 떠나기 전에 교회 출석, 좋은 동반자를 찾는 일, 교회의 표준을 지키는 일, 등을 솔선해서 처리하는 법을 배웠다던 이와같은 저들의 자세를 어디에 가든지 아무렇게나 던져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저들은 기도도 스스로 솔선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는 모두 쌍방의 관점을 충분히 바꿔 생각하면서 서로의 견해와 생각을 잘 들어야 한다.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그것으로 논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론은 가족 전체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된다.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처세의 훌륭한 방법이 된다. 일단 가결정을 내려놓고 숙의에 숙의를 거듭하면서 열심히 기도로 간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일단 젊은이가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부모는 집을 떠나는 젊은이가 부모의 도움과 협조를 얻는다는 확신과 용기를 갖도록 해준다. 집을 떠나는 젊은이가 부모의 협조와 축복의 힘을 얻는다면 성공의 확률은 훨씬 커진다. 젊은이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준



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될수만 있으면 집을 떠나는 젊은이는 집 근처에 기거할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서로 가깝게 있어야 주말이나 공휴일을 통한 부모 자식간의 연락이 있을 수 있고 방문이나 전화 연락이 용이한 것이다.

기거할 장소를 결정할 때는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직장, 와드나 지부까지의 거리 및 관계 등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직장까지의 거리, 교회와 시장까지의 거리, 근처의 오락 시설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웃 사람의 성분, 근처 건물의 성격 등도 아주 중요하다. 생활의 표준이 비슷한 동료와 함께 방을 쓰게 되는 경우 필요한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경비도 절약하게 된다.

시설이 좋은 집은 값이 비쌀뿐더러 그 안에 들어가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법이다. 집을 떠나서 새 직장을 찾고 또 첫월급을 받을 때까지는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떠날 때 적어도 두달 동안을 살 수 있는 경비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집을 떠날 계획을 하는 젊은이는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와드 감독의 충고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소속 와드의 감독의 제언과 충고는 결정을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감독은 자기 와드에서 떠나는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곧 서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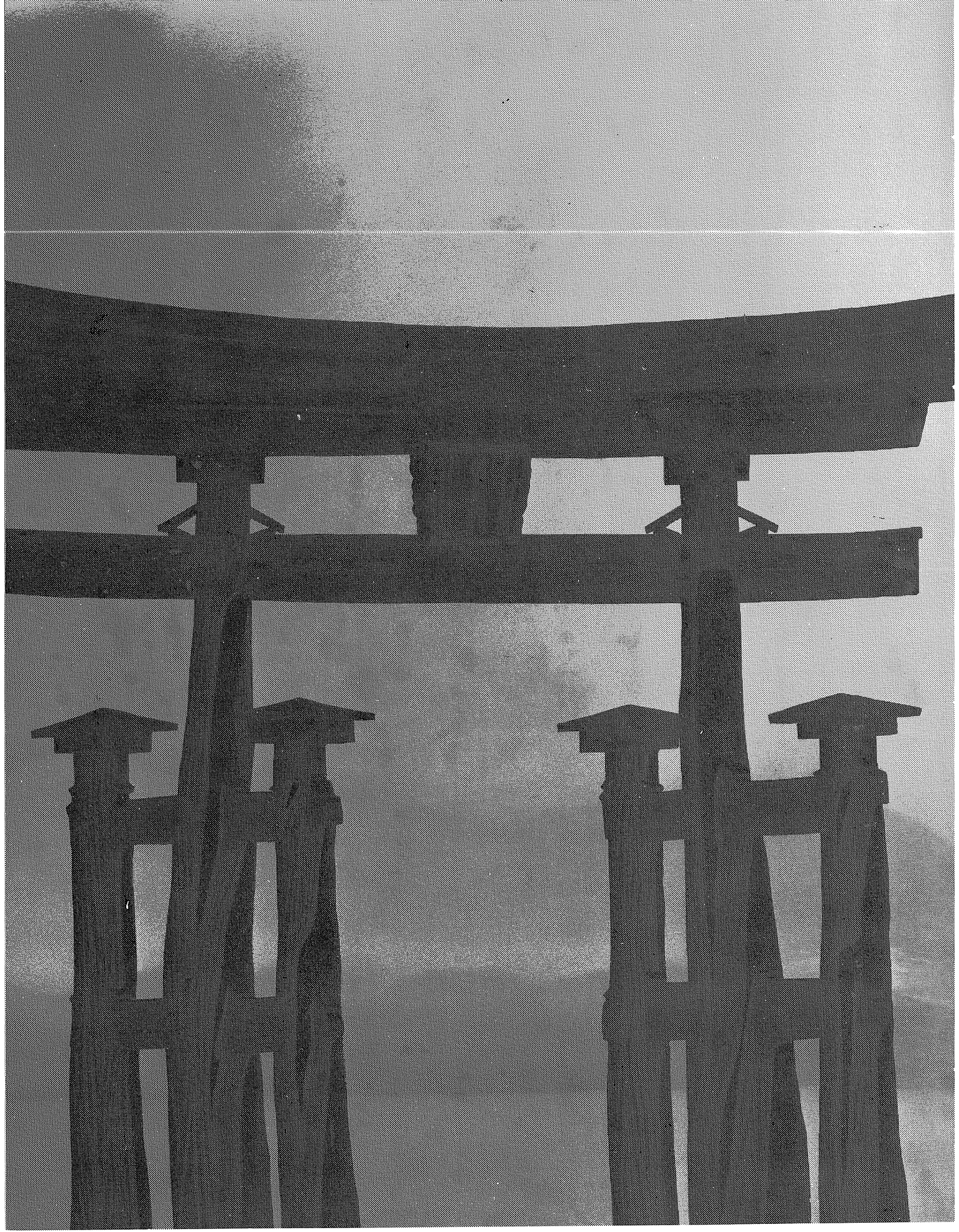
집을 떠나는 젊은이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적어도 현명한 부모라면 소속 와드 감독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부모는 또한 직접 방문을 하던지 주기적으로 편지를 띄워 새로 임명된 감독에게 자녀가 어떻게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는가를 알려준다.

불행하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려 가정을 떠나기 전에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하여 세상의 악에 쉽게 빠져 버리며 합당한 기숙처를 찾지 못한데 실망하여 저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와 못된 친구에 휩쓸리게 마련이다.

집을 떠나는 젊은이가 당면하게 될 심각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교회는 저들을 악에서 구제할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가정을 떠나는 젊은이를 돌보아야 할 책임은 떠나는 젊은이, 그의 부모 그리고 소속 와드의 감독이 나누어야 한다.

가정을 떠나는 청소년을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에 보면 떠나는 젊은이가 자기의 신거주지 주소를 소속 와드 감독에게 연락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감독은 가정을 떠나는 젊은이를 위한 카드를 작성하여 교회 사회 봉사 과로 보내고 그곳에서는 젊은이가 소속될 와드 및 감독이 어디에 있는 누구라는 것을 정하게 되며 그 감독으로 하여금 젊은이를 찾아 보도록 한다. 젊은이가 자기 와드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연락받은 신감독은 곧 이 젊은이를 받아 들일 준비를 한다. 그는 그 젊은이의 기숙처를 정하거나 함께 방을 쓸 수 있는 동료를 알선하는 일에 협력을 하기도 하며 새로 갖게 될 직장에 관한 유익한 충언을 들려 주기도 한다. ○



숫아 오르는 복음의 태양

롤린 에프 필라이트

브리감 영 대학교 문리과 대학장인 필라이트 박사는 1956년 이래 주일학교 총관리 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 동이 트니 날이 밝는다.¹ 시흥이 감도는 이 찬송가는 팔리 피이 프랫이 작사한 것으로 태양이 숫아 오르는 땅에 “시온의 표준이 펼쳐 지므로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대관에서 열렸던 엑스포70에 참석했던 6천 5백만 중에 6백 5십만이 물몬관에 발을 들여 놓았었으니까 총 인원의 십분의 일이 들어 왔었다는 결론이 된다. 이곳에서 선교사들은 이들을 따듯하게 맞아들였고 수천 수만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더 알고 싶다는 요구를 갖게 되었다.

약 칠십 여년 전에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일본에 뿌린 씨가 이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일억 오백만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에 현재 교회 회원의 수는 14,000명이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활기가 유서 깊은 이 나라에 새로운 삶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떠나게 된다. 일본 국민은 의욕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매우 헌신적이다. 극동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는 복음의 여명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로운

신앙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다.

물론 선교사들이 겪어야 했던 초기의 좌절감과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선교의 성공과의 현격한 차이를 에라투스 레온 자비스를 통하여 주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현재 팔십칠세의 노인으로 후에 7대 대관장에 성임되었던 히버 제이 그랜트와 함께 일본에서 선교사업을 하던 사람 중의 유일한 생존자이며, 자비스 형제는 최초로 그랜트 대관장과 동행했던 세 선교사 루이스 에이 켈치, 호레이스 에이 엔사인, 엘마 오우 테일러에 관하여 들려 주었다. 그는 내게 1903년 4월 어느 날의 일기도 보여 주었다. 요코하마에 있는 와이 엠 씨 에이 회관을 빌리기로 교섭하여 처음에는 승락을 얻었으나 다시 거절 통보를 받았다. 해명을 요청한 그랜트 대관장님의 편지에 대한 회답이 자비스 형제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귀하께서 방문하셨을 때는 우리는 귀하가 어느 교회에 종사하는 분인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단체의 간부들은 귀하가 의도하시는 목적으로는 건물을 빌려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신중하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불비. 우 수미 드림”

당시의 선교사들은 거의 모두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을 했으나 오늘날에는 전혀 풍토가 바뀌었다. 지난 엑스포 '70에 신교와 구교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찬송가 222장



일본 오오사카시에 있는 오
까마찌 지부 주일학교에서 미
에꼬 아끼 자매가 가르칠 때
면 온화함과 열성이 눈에 띄
게 나타난다. 미에꼬 자매의
가르침의 성공은 그녀의 반원
인 시게로 미조구찌, 미에꼬
고자, 지에꼬 이시마루, 유미
꼬 아마가세, 준꼬 구와노의
얼굴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의 합동 회관인 기독 회관에서 본인이 간단한 울간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커다란 축복이었다. 나는 “성도들아”²를 필두로 바하³의 곡과 여러 유명한 음악가의 곡을 연주했고 말일성도 찬송가에서 뽑은 곡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거기엔 우리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함성은 없었고 상호 이해와 우정의 유대가 영겨 있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내게 접근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를 잡느라고 열마를 기다리다가 내 앞으로 와서 손을 내밀더니 금방 눈에 눈물이 글썽 거리면서, “우리도 회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에 일본 성도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히로히도 황제의 형제가 물론관에 참석하여 “행복의 추구”를 관람하는 동안 내가 그 곁에서 안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다. 그의 조용하고 알아보겠다는 열의에 차 있던 태도는 펍 인상적이었다. 버나드 피 블룩뱅크 형제와 에드워드 와이오까사끼 형제가 인사를 하고 쇼조 수스끼 형제가 전시회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그 이후로 나는 일본 중앙 선교부장단 제일보좌관인 수스끼 형제로부터 히로히도 황제의 형제와 미까사노미야, 다께히로 등 그의 측근 인사들에게 여덟 편의 다른 영화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수스끼 형제는 또 저들의 여덟 자녀에게 줄 기념의 책도 요청하였다. 그의 기록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 “일본 사람으로서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황실의 가족과 사진을 함께 찍었으니까요”. 1903년 그 회관을 빌리려다가 거절을 당한 이래 교회가 대중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다.

내가 일본을 방문한 것은 주일학교 총본부 회장이신 데이비드 로렌스 맥케이 형제께서 주일학교 임원회의 일원으로 주일학교를 대표하여 동양에서 최대로 열리는 교구대회에 참석하라고 하신 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주일학교의 실황을 파악하고 나는 동경 스테이크 산하의 제3와드 주일학교에 참석하였다.

우리 일행이 각반을 둘러보니 모두들 공과책을 열어 놓고 복음 공부를 하고 있었다. 특

히 유년 주일학교에서는 시청각 보조 자료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후에 안 일이었지만 동경 스테이크에 도서실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나 주일학교를 맡은 수이찌 야가누마 형제의 수고로 회원과 구도자가 복음을 배우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모든 순서가 잘 정리되어 있었다. 교구 대회에서는 수이찌 야가누마 형제와 스테이크의 주일학교 임원회 역원들이 참석하였고 영화 “이보다 더 위대한 부름은 없다”를 일주만에 완전히 번역하였다. 그리하여 모임에서는 번역된 대사를 영화에 맞게 녹음하여 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 여기서 보여준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이들의 결의가 주일학교를 힘차게 밀고 가겠다는 이들의 자세를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다.

대관에서는 일본 중앙 선교부 선교부장이신 오까사끼 부처의 초청을 받고 교사 훈련반을 맡았고 오까마찌 지부의 주일학교에 참석하였다. 일본에서의 주일은 기독교인의 휴일이 아니어서 고베에서 대관까지의 교통의 대 혼잡으로 그만 우리는 모임에 늦고 말았다. 분반 공부가 막 시작된 후에 우리 일행은 도착하였다. 예배를 농친채로 우리는 각반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카메라로 펍 인상적인 일본 성도의 주일학교에서의 모습을 찍을 수 있었다. 그중 몇개를 이 기사와 함께 이곳에 실는다.

낮익은 미에코 아끼 자매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나는 옆으로 비켜 서서 그의 가르침을 받는 청소년들을 살펴 보았다. 그들은 모두 열중해서 공과를 듣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카메라를 그들에게로 돌려 일찌기 찍을 수 없었던 귀한 장면을 찍었다. 완전히 공과에 열중한 이 동양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고 브리감 영 대학의 간부 하나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맨 먼저 일본에 들어간 사람의 하나입니다만 이와 같은 모습의 사람은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들의 눈에는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러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복음의 빛입니다.”라고 했다.

나는 또한 아끼 자매의 표정에서 칠판에 적은 복음의 뜻을 가르치겠다는 열의와 이를 학생들이 이해했다는 확신에서 얻어진 환희가 함께 엮여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때의 그 열중한 얼굴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정성이 얼

2.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찬송가 86장

3. 바하, 요한 세바스찬—독일의 음악가, 1685—1750

만큼이나 되느냐 하는 사실과 진리와 효과적인 가르침이 과연 사람의 삶에 무엇을 전하느냐 하는 문제를 웅변 이상으로 전달해 주었다.

그 지부에는 자기는 장님이면서 또 다른 회중에게 빛을 발하는 뛰어난 교사가 또하나 있었다. 우연히 어떤 교실을 엿보다가 가방을 열어 놓지도 않은채 공과를 진행하는 기요시 이또 형제를 보게 된 것이다. 우리는 후에 그와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완전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날때부터 장님입니다. 오직 손가락과 귀로만 분별하지요. 국민학교 4학년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점자로 된 악보가 있어서 한 손으로 악보를 읽고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며 그 음악을 완전히 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다 배우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나는 지금 설혼 다섯살입니다. 1950년에 기차안에서 미국 선교사를 만났지요. 루드 케이 니담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의 동반자는 클라크 자매였습니다. 그들은 내게 상향회와 주일학교가 아주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1951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1955년에서 1970년까지는 여러 지부에서 울개 반주자 노릇을 했고 금년에 반주자 직에서 해임된 후 주일학교의 가정의 밤 담당 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공과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게 문제예요. 형제님은 성경이나 다른 책자를 읽을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이유로 한번 거절했다가 마음을 고쳐 먹고 수락했습니다. 아내에게 녹음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듣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쯤 아내는 다음주 공과를 녹음해 줍니다. 그러면 나는 매일 그걸 듣지요. 필요할 때면 아내에게 경전을 읽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내가 경전을 읽는 동안 나는 필요한 사항을 점자로 기록합니다.”

“가르치는 일이 재미있나요?”라고 물으니,

“3월부터 가르쳤는데 처음 달에는 책을 보지 않고 얼마만큼이나 기억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고 주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가르치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공과 내용도 좋구요. 내 자식들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간결하고 직선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면 이또 형제와 그의 아내 요시 자매와의 깊은 정신적인 유대를 짐작하고 남으리라고 믿는다. 나는 그들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물었다. 그는 일년에 네차례씩 열리는 고베 대회에서 둘이 만나 “상향회와 주일학교를 통하여 재미있는 시간을 나누었다”고 말하고는 이렇게 뒷말을 이었다. “자 이젠 아내에게 이야기를 시키시죠.” 그런데 그녀는 영어를 할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했다. 이 헌신적인 아내와 그의 모친이 어떤 대회에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고 이또 형제에게 자기는 평생 이또 형제를 돕겠다고 편지를 했다는 거다. 그후 그들은 신전에서 결혼하여 결봉되었다. 지금은 10살된 딸이 있다.

그는 십년동안 나이트클럽에서 피아노를 연주하여 생계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직업이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하는 것이어서 부득이 그만두었다고 한다. 지금은 집에서 영어와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다.

영어는 어떻게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라디오로 배웠어요. 20년 동안 영어 회화를 들었습니다. 나는 영어를 아주 좋아하지요. 그래서 영어 회화에 열을 냈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태도로 영어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내겐 영어 학습에 필요한 돈이 없었어요. 라디오를 듣는 방법 이외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어 발음은 다른 일본인 보다도 월등했다.

찬송가 곡은 어떻게 배웠느냐고 했더니 한 마디로 “들어서” 배웠다고 했다.

비록 이또 형제는 앞을 못보는 장님이었지만 라디오의 선생과 자기가 배우겠다는 음악, 그리고 기차 안에서 만난 두 자매 선교사와 자기 아내에게 듣는 비법을 배움으로서 위대한 진리와 행복을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빛과 사랑의 신천지를 찾은 것이다.

약동하는 일본 성도들의 영적인 자세에서 우리는 일찌기 팔리 피이 프렛이 외친 이야기가 실현되고 있음을 본다. “보다 밝은 날의 광명이 세상에 비쳐온다.” 이제 일본에는 새로운 광명이 비친다. 그것은 사람들의 얼굴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요 인간에게 평화와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누가 2:14 참조). ○



갈등의 원리

권지 맥케이

● 평생을 두고 조지는 정직해야 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살았다. 그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마음을 상해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다. 조지가 결혼한지 일년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날 저녁 아내가 문에서 그를 맞으며 회색을 만면에 띄우고는 “여보 얼른 들어와서 새로 산 램프 좀 보시겠어요. 금방 좋아하실 거예요”라고 하였다. 거실 탁자 위에 고풍을 띤 램프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못 의기 양양해서 물었다. “자 어때요?” 그는 그 램프가 형편없이 보기 싫다고 느꼈지만 그런 얘기를 사실대로 실토했다면 아내가 실망할 것 같아서 그만 두었다.

조지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을 기억했다.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반드시 있는 그대로의 설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느낀 사실의 전달이다” 이번의 경우 조지는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좋다고 해야 할지 그래서 아내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건지 아

니면 사실대로 실토했어야 할지?

물론 우물쭈물해서 궁지를 모면하자면 뭐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을 생활에 받아들인 사람으로의 태도는 아닐 것이다. 옳은 일을 선택하기가 때로는 아주 어렵다. 이런 일은 자주 우리들의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갈등의 원리”라고 일컬어 지기도 한다. 즉 사람에게 두개의 올바른 원리가 제시되어 그 중 하나를 지킬 때 다른 하나를 거역해야 하는 갈등인 것이다. 이런 경우에 결정을 내리 기란 참으로 힘든 것이며 참도 못

지고 늘 염려와 고민으로 초조하기 마련이다. 주일의 활동 평가는 명백하여 (성찬식 참석)하면 말할 것도 없이 옳은 것이고 (영화 관람)하면 틀린 것인데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한계가 분명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않는다. “갈등의 원리”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선지자 리하이가 “만사에 반대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니”(나이 2:11)라고 한 말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그의 이야기는

갈등의 원리를 지적하고 있고 사실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일 것이 틀림없다. 사람의 신체를 보면 근육과 근육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서로 잡아 다니고 하여 튼튼한 몸뚱어리를 이룬다. 만일 우리가 명백하게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될 수 있는 두가지를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인 근육을 강하게 단련시키지 못할 것이다. 모르긴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단순하고 간단한 것 보다는 복잡한 문제를 다룸으로서 인간이 더욱 발전할 것을 계획하시고 미리 복잡한 원리를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왜 아담과 이브에게 태초에 갈등의 원리를 제시하셨는가? 최초의 인간은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을 받았다. 동시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도 받은 것이다. 이 두가지 중에 하나를 지키자면 자연스럽게 다른 하나를 어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다음에 열거하는 예와 같은 어렵고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

1. 열 여덟 살 되는 사람이 칩레 받기를 원하는데 그의 부모가 반대를 한다. 원리 가. “회개하고 칩레를 받으라” 원리 나.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사행 2:28, 에베소서 6:1 참조)

2. 어떤 아버지가 소년단원인 아들과 특별 모임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로부터 주지사와의 비행장에서 만나 외국 손님을 영접하는데 통역으로 수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원리 가. 아버지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원리 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임무를 다 해야

한다.

3. 기업주는 불황기에는 경비 절감을 위해 노무자를 줄여야 한다. 그중 자녀를 아홉이나 둔 노무자가 포함된다. 원리 가.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불친절해서는 안된다. 원리 나. 주주의 이익을 5퍼센트로 올리고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젊은 청년이 전쟁터에서 적과 대치했다. 사살을 해야 하나? 원리 가. “살인하지 말라”(출애굽기 20:13 참조) 원리 나. 자유를 수호한다.

5. 15세된 소년이 학교에서 새 친구를 만난다. 그 친구는 나쁜 버릇을 가졌고 가정도 좋지 못하다. 부모로서 이 친구와의 유대를 권장할 것인가? 원리 가. 나쁜 친구는 나쁜 영향력을 길러준다. 원리 나. 이웃을 사랑한다. 친구 없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 준다.

6. 어떤 회사 부장 하나가 우연히 클럽에서 회사 사장으로 부터 부사장이 능력있는 사람이나고 하는 질문을 받았다. 사실 부사장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무어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원리 가. 상관에게 충실한다. 원리 나. 정직하게 심정을 이야기한다.

서로 상반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적어본다.

1. 서로 상반되는 원리를 확실히 정리한다.

2. 원리의 우선 순위를 정리하여 본다. 예를 들면 보다 더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 보는 거다 “살인하지 말라”라던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의 계명에는 모순점이 없다.

3. 두개의 원리가 대두될 때는 둘 중에 더 높은 원리를 따른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 먹은 예와, 니파이가 레이벤을 살해한 원리며 구세주가 간음한 자를 용서한 원리이다. 보다 높은 원리

를 따르는 열쇠는 기도로 결정을 내리는데 달려 있다.

갈등의 원리를 놓고 이러한 절차에 쫓아 해결 하려 할 때 수반되는 모든 번민과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들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순위의 차가 큰 문제를 다룰 때는 결정을 내리기가 쉬울 것이다. 우선 순위의 차가 적으면 적을 수록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도 장사를 하는 고용주에게 고용되었다고 하자.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으나 수입이 이십 퍼센트나 떨어진다. 물론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겠지만 적은 월급으로 가족의 생계는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원리와 교육, 휴가 음악강습 등에 필요한 금전의 원리가 대두된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

물론 자기 합리화를 하기는 쉽다. 그래서 편리한 대로 행동하게 마련이지만 구세주는 주의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세상에는 어렵고 딱딱한 원리에 쫓아서만은 살지 못한다는 사람도 허다하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변의 여건과 요구에 따라 행동한다. 사회제도의 제약이나 경제적인 제약을 받을 때 자기 합리화의 방법이 반드시 자기의 입장을 지켜 주지는 않는다.

어느 원리가 더 높으나를 결정할 때 어느 원리가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요령이다. 금식과 기도로 간구하여 정한다면 절대로 안정할 것이다. 매리온 디이 행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장 중대한 일을 가장 소홀하게 다루지 말라”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생 자체가 결코 손쉬운 것은 아니다. ○

1. 창세기 1:28 참조

2. 창세기 1:17 참조

지미의 생일 선물

● “내 생일이 와요” 지미가 말했다.

“그래 내가 선물을 할테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무슨 선물요?” 지미가 물었다.

“자라는 선물이란다”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다.

“강아진가요?” 지미가 물었다.

“강아지면 좋겠는 걸”

할아버지는 그렇다고도 그렇지 않다고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다시 말씀을 이었다. “이 세상에 자라는 건 많으니까 지미야”

“고양이 새끼예요?”

“고양이 새끼라면 좋겠지”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이번에도 아니라고는 하지 않으셨다.

“생일날이 되면 다 알게 될거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가 내게 자라는 선물을 주신 댕어” 엄마에게 지미가 말했다 “난 그게 말이면 좋겠어요”

“아니야 붕어나 새라면 더 좋겠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말을 탈줄 알아요” 지미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내게 자라는 선물을 주신댕어요” 지미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잘 됐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돈을 주신다던?”

“아뇨” 지미가 대답했다. “돈이 자라나요”

지미는 생일날을 기다렸다. 과연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주실 것인가, 고양이를 주실 것인가, 아니면 말을, 금붕어를, 새를, 돈을 주실 것인가? 지미는 아주 지루하게 하루 하루를 기다려 마침내 생일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지미보다 키가 더 큰 보따리를 가져 오셨다.

“이게 강아지는 아니고” 지미가 말했다.

“고양이나, 금붕어나, 새나 돈은 아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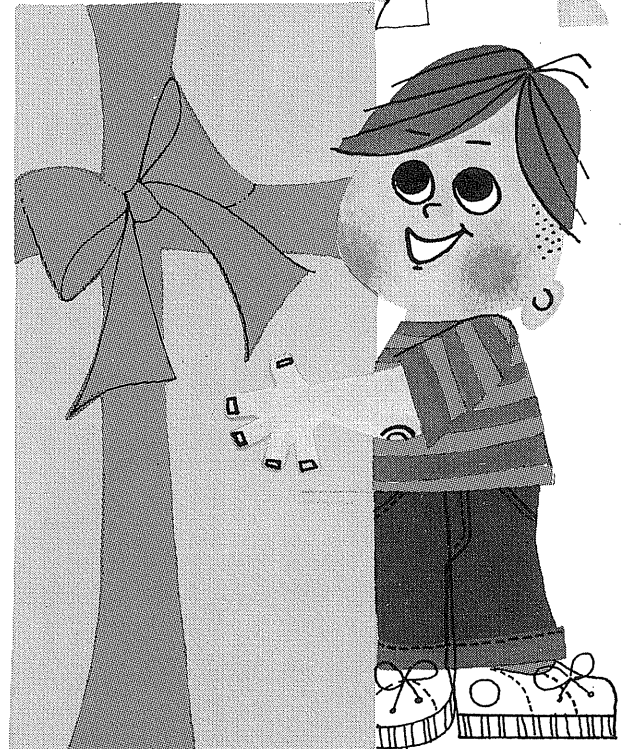
“아니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건 자라는 거란다”

지미는 할아버지가 키 큰 보따리를 끄르는 일을 도와드렸다.

“와! 나무다!” 지미는 소리를 질렀다.

“그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거리셨다. “자 구덩이를 파고 이걸 심자. 조심해서. 앞으로 네 생일이 올 때마다 이 나무도 나이를 먹지 않겠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지미가 외쳤다. “생일 선물로 주신 나무를 감사합니다.”○



길 잃은 아이



쥘리아 챔벌레인 지
로날드 크로스비 옮김

● 시몬은 여덟 살이 되면서부터 가족의 주식인 빵을 시장에 가서 사오는 일을 맡았다. 다른 아이들 처럼 뛰어 놀고 싶은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시장에 가는 일도 여간 재미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시장은 늘 재미있었고 특히 카라반이 에집트나 아라비아로부터 물건을 싣고 도착할 때면 시장은 더 재미가 있는 곳이었다. 시몬은 오늘 다른 날보다 더 즐거운 마음이 되어 시내 중앙으로 뻗은 골목길을 급히 걸어 내려갔다. 바

로 어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위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보았다.

친구들이 시몬의 부친께 이 위대한 선생과 그분의 가르침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으러 갔던 것이다. 시몬은 그때 사람들이 풀밭에 둘러 앉았던 모습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고로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던 사람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

분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유했으며 또 맑고 분명해서 둘러앉은 수많은 무리가 다 들을 수가 있었다. 시몬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느꼈던 기쁨과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던 그 순간의 심정을 되살려 보았다.

바로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오늘 시몬은 다른 때보다도 훨씬 즐거웠던 것이다. 빵을 사는 것은 고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즐거움으로 하는 봉사의 수고인 것이다.

급작스럽게 시몬은 우울해지고 말았다. 바로 눈앞 건물 그늘에서 로마 병정 둘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서 있었다. 시몬은 너무 어려서 로마 병정들이 언제 팔레스타인에 입성했는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들이 들어와 성전을 쳐부수고 회당을 허물고 그들을 가로 막던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지금은 로마인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유대인에게는 높은 세금을 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민족간에 사랑이 없다고 하여 그것이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가?

시몬은 발걸음을 빨리하여 그 파수 병정 옆을 지나쳐 갔고 군인들은 그런대로 저희들 끼리 이야기에 열중하여 시몬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시장은 다른 때 보다도 더 붐볐다. 그래서 빵 가게로 가기가 힘들었다.

“오늘은 왜 일로 이렇게 사람이 많죠?” 빵값을 내며 빵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어제 밤 해금으로부터 낙타 행상의 두 무리가 도착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가져온 물건을 구경하러 몰려 든단다” 빵가게 주인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시몬은 머물어 재미있는 걸 모두 구경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저녁에 쓸 빵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그는 시장을 가로 질러 가되 될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피해 걸음을 재촉했다. 막 집으로 들어가는 큰 길 어귀에 들어섰는데 길 한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울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시몬은 로마 병정들이 서 있는 곳을 지나치면서 그 아이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라는 점과 자기가 그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가를 생각하며 다시 우울해 졌다. 그 아이가 로마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엾게 생각되는 것이다. 그 아이는 군중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했던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상을 찌프리거나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거나 하지 않은채 그저 자기들의 일에만 열중했다.

시몬은 머뭇거렸다. 아이는 로마인인 것이다. 왜 내가 그 아이를 도와야 하나? 그뿐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 집에 늦게 되고 그러면 어머니

가 걱정을 하실 게 아닌가. 시몬이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려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귀에 들려 오는것 같았다. 그분은 서로 사랑하되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시몬은 돌아서서 군중을 헤집고 우는 아이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 아이를 잡았다.

“너 길을 잃었니?” 시몬이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너의 집이 어디지? 내가 데려다 줄게”

어린아이는 울먹이면서 잘 알아 듣지 못할 소리로 지결였지만 돌기둥이 박힌 큰 집이라는 이야기는 알아 들을 수 있었다. 시몬은 그것이 로마 관리의 저택이라는 생각이 들자 조금 두려워 졌다.

나는 그곳에는 갈 수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는 다시 마을 중심가로 되돌아 섰다. “울지마라” 그는 아이에게 말했다.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그는 흐느껴 우는 아이를 내려다 보았다. 그 아이를 데려다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는 다시 마을 중심가로 되돌아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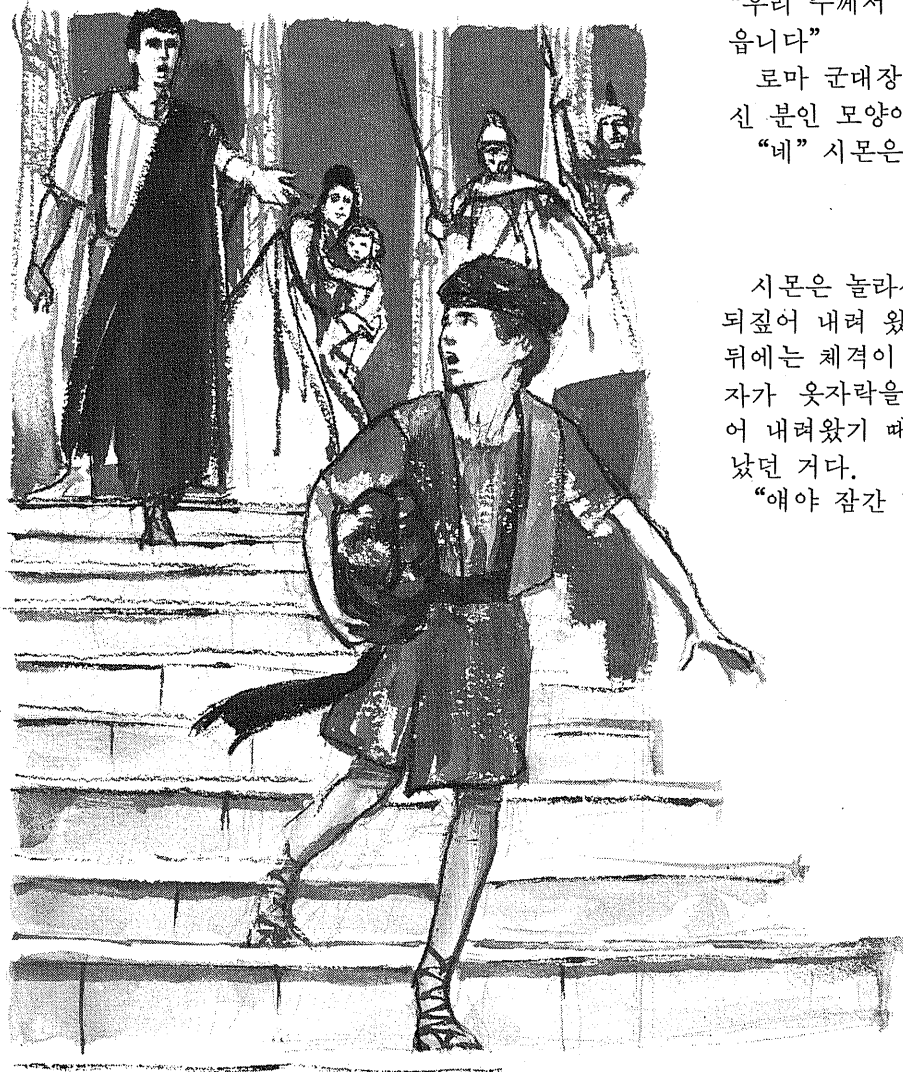
“울지마라” 그는 아이에게 말했다.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그러나 로마 병정들이 저택 주변에 파수를 선 것을 보고는 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다시 아이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고는 흰 집으로 연결된 층계를 오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반가운 함성이 들려왔다.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잠시 후에 문이 활짝 열리더니 푸른 비단으로 성장을 한 여자가 시몬과 아이가 서 있는 곳으로 달려 내려 왔다.

“엄마!” 아이가 시몬의 손을 뿌리치며 그 여인에게로 향하며 외쳤다.

시몬은 놀라서 층계를 되짚어 내려 왔다. 여인의



뒤에는 체격이 건장한 남자가 옷자락을 날리며 뛰어 내려왔기 때문에 겁이 났던 거다. 주변에 있던 병정들이 우 물려 들었다.

“애야 잠깐 멈춰!”

시몬은 돌아섰다. 키가 큰 사람이 손짓해 불렀다.

“이리 올라와!”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대단한 위엄이 있었고 시몬은 하는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랐다.

“아들을 데려다 주어서 고맙다” 그 남자는 말했다. “하루 종일 병정들을 시켜서 아이를 찾았다. 넌 우리 아들을 어디서 보았니?” 시몬은 그 남자가 군대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몬은 긴장해서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 가다가 길을 잃은 아이가 울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했다. 군대장은 잠시 의외라는 표정이 되었다.

“그렇지만 너는 유대인이 아니냐” 그는 말했다.

“왜 로마 사람을 도와 주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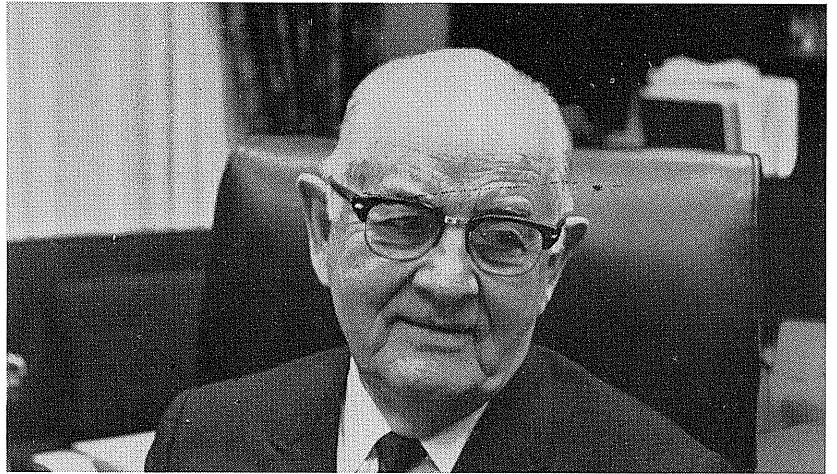
시몬은 이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우리 주께서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로마 군대장도 미소를 지었다. “너의 주는 훌륭한 분인 모양이구나”

“네” 시몬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훌륭하십니다”○

시몬은 놀라서 층계를 되짚어 내려 왔다. 여인의 뒤에는 체격이 건장한 남자가 옷자락을 날리며 뛰어 내려왔기 때문에 겁이 났던 거다.

“애야 잠깐 멈춰!”



결정 : 왜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 젊은 사람들은 자주 자기들이 바라는 것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저들은 또 훌륭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미리 연습을 잘 해야 한다는 사실도 배웁니다. 손자 중에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레슬링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십대의 왕성한 식욕까지를 억제하면서 그 아이들은 몇끼씩 굶어가며 체중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맹연습을 합니다. 때로는 가슴에서 불이 붙고 온 몸이 노곤하도록 연습을 합니다. 저들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신체적인 고통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임무를 끝내고 나는 대학 진학을 원했으나 우리 집안 형편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비를 벌 작정으로 로스 앤젤스로 가서 남 태평양 철도 회사의 화물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열 네시간씩 창고와 화물차 사이로 두 바퀴 손수레에 짐을 싣고 뛰었습니다. 어떤 때는 일천 파운드의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끝날때면 나는 거의 기진할 정도로 피로했고 그 이유를 구태여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때 이십리 쯤 떨어진 누이 집에서 기거했습니다. 그때 전 차 값은 10센트였는데 나는 하루 왕복 차값 20센트를 벌기 위해서 그 길을 꼬박 걸어 다녔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야 되겠다는 갈망으로 그 먼 길을 걸으면서 나는 나의 결심과 목표를 새롭게 했습니다. 나는 학비를 넉넉히 벌어 가지고 고향인 아리조나주로 돌아가 아리조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개개인이 정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결정을 내리는 일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우리는 교차로에 이르게 되고 그럴때마다 갈 길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험하고 긴 길을 가기도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짧고 안이한 길이 열리기도 하지만 그런 길은 우리가 소망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갈망하는 최후의 목표를 언제나 명백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하므로써 여러 갈래의 길에 부딪치게 될 때 서슴치 않고 진로를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더 편하고 즐거운가? 다른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는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미리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둘 때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합니다.

미리 목표를 세우므로써 피로하거나 유혹을 받을 때 갈림길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절대로 차나 커피, 담배, 술 등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고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이러한 젊은 시절의 결심으로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뺏지 않을 수 있었음을 체험했습니다. 담배 몇 모금, 술이나 차 몇 방울에 손을 댈 유혹에 당면하기도 했지만 굳게 정리한 결심으로 해서 나는 언제나 그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과 명철과 이성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해야 되겠다는 결심은 사실은 선교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운동선수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기 훨씬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전 결혼도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가 실제로 연결되기 훨씬 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겠다는 결심은 상점 주인이 거스름 돈을 받을 돈보다 훨씬 많이 내주기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의 친한 벗이 여러분을 어리석은 점쟁이라고 놀리기 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만을 좇을 뿐 그 외의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는 결심도 미리 세워져야 하며 그 결심을 여하한 유혹도 흠어버리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노 없는 배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이리 저리 밀려가듯 사람도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을 때가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옛날의 결정이 현명치 못했던 소치라고 믿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택하는 목표에 따라서 무엇이라도 이룰 수 있는 잠재력과 가

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시절에도 그 가능성은 크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지난 날이 미래의 꿈과 소망 달성의 가능성을 좁혀 놓았음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는 점점 우리들의 장래에 대한 결정권을 잃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주위 환경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떠한 여건 속에서든지 자기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경전의 말씀 하나를 인용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

나는 고난이 여러 사람에게 각기 다른 결말을 안겨준 실례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상적이어서 스스로를 가엾게 생각하고 장래를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에 도전하여 극복하고는 더욱 폭 넓고 유능하고 굳건한 성품을 얻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저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닦아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리차드 엘 이반스

● 어떻게 해야 옳을지를 모를 때의 고통스러움을 셰익스피어는 “나는 해야 할 것인지 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로 뒤범벅이 된 싸움에 당면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옳고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나 모호한 사람들은 “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로 혼돈되고 갈피를 잡지 못한채 스스로를 확대하게 됩니다. 전공을 바꿔야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므로서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나 시간을 들이고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그릇된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불확실한 출발을 시도하여 도중에서 자주 정지하다 보면 전혀 의욕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내려야 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사실과 기도에 의지한채 남의 권고나 간섭을 받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비로소 자기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사실 결정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때가 많습니다. 도독질을 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기는 용이합니다. 선과 악을 놓고 우물쭈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사소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의 귀한 인생을 허비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실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기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성약과 계약을 지키겠다는 결정도 해야 합니다. 남의 것을 빌리는 경우 그것을 갚겠다는 마음도 정해야 합니다. 병이 나면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학업을 능력이 닿는데 까지 계속하여 자기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도중에서 던져버리지 않겠다는 결정도 내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중하고 창의적이며 남을 도움고 청결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정도 내려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으로 쓸모 없는 일입니다. 사려 깊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되고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겠다는 결정을 해야 하며 결코 “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의 혼란으로 스스로를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

젊은이에게 부과되는 네가지 과제

빅터 비이 클라인 박사

● 희랍 신화의 유명한 영웅 허큐레스는 아고스 왕의 아들 울리시이즈를 위해서 열 두가지 불가사의한 일을 이루라는 명을 받는다. 불가사의한 이 열 두가지 일 중에는 하루만에 오오지아스왕의 외양간을 청소하는 일, 미노스의 야생 들소를 사로잡는 일, 머리 아홉개가 달린 독사 히드라를 죽이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불가사의한 이 일을 행한후의 보상은 불사불멸이었으며 신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이였다.

권위있는 일부 학자들은 허큐레스가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사람으로 미케네시대에 티린의 군대장으로 아고스 왕의 신하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나 사실일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꾸며진 그의 행적의 이야기는 출처가 모호한 역사의 이야기와는 관계없이 몇가지 심리적인 사실을 들어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상상력과 용기와 자제력으로 몇가지 상상할 수도 없이 어려운 일을 달성하여 희랍에서 정의하는 최고의 왕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사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정신력으로 부딪혀 싸워 나가야 할 특별한 임무 내지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문제는 허큐레스에게 제시되

었던 문제보다 결코 수월하지가 않은 것이다. 문제의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그 문제의 어려움 내지 정의하는 달성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유타 대학 카운셀링 쉐타에서 칠년, 그리고 여러 병리 실험실과 단체에서 일하면서 개별적으로 청소년들과 생활하는 동안 나는 허큐레스에게 부과되었던 것과 같은 작업이 말일성도 청소년들에게 당면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네가지 작업은 육체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땀흘리는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오 정신적인 도덕적인 문제요 시험인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서도 오늘날의 이 문제는 신화 속에서 허큐레스에게 제시되었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말일성도 청소년에게 제시되고 있는 네가지 문제는 에레베스트 산을 내게 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때로는 그 산의 정복이 아주 불가능 하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정상의 정복이 이루어 지기만 하면 그 보상은 돈으로는 살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갖는다. 흥미있는 사실은 이 산의 높이를 잴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문제는 작업의 문제로서 모든 사람이 어려서 겪게 되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이것을 “권위 도전의 갈등”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대체로 남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잘 따르려 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령권하에 처하기를 원치 않는다. 누구든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사회가 존속하려면 서로의 보호와 권익을 위한 어떤 동의점을 서로 구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와 독립에 대한 불같은 소망을 갖고 있으며 자기들은 전혀 법에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사는 것처럼 느끼며 또 그렇기를 바라고 있다. 저들은 저들에게 퍼부어지는 간섭과 제재에 지쳐 있다. 저들에 대한 간섭은 가정에서부터 소위 기성을 대표하는 부모로부터 비롯된다. 가정이 사회의 축소 단위인 만큼 세대간의 많은 갈등이 이곳에서부터 맺어진다. 그

리고 결국 어느 세대가거나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갈등 내지는 투쟁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날 아침 나는 말일성도 대 학생을 면담하게 되었다. 한 시간 남짓 나와 함께 있는 동안 그는 한 갑 반이나 되는 담배를 피웠다. 담배 한가치를 열만큼 피우다가는 비벼 던져 버리고 다시 신경질적으로 새 담배를 꺼내어 피우곤 하는 것이었다. 담배 맛이 그리 달갑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의 얼굴 표정을 놓치지 않고 나는 그에게 담배 맛이 좋으냐고 물었다. “아뇨. 천만에 말씀입니다.”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담배 맛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담배는 왜 피우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좀 당황한 표정으로 자기도 모르겠노라고 대답했다.

그의 주벽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는 자기는 여러 가지 술을 폭음해 보았노라고 하면서 별로 그것이 맛있는 줄 모르겠고 왜 자기가 술을 마셔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교회와 교회의 철학과 가르침에 끌리면서도 교회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왜 자기가 참석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그의 주변을 조사해 본 결과 그는 종교적으로 무척 열심이면서 좀 엄격한 편인 자기 아버지에 반발하면서 그 위세에 놀려 생활하고 있음을 발견해 냈다. 상호간의 원만한 교통과 이해가 마비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 젊은이는—대개는 무의식적으로—자기와 아버지가 갖는 종교가 금하는 사항과 규율에 반발하므로써 아버지와와의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아버지를 보

다 효과적으로 아프게 해 드리고 자기는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임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권위를 대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대화의 통로를 마련할 수 없었던 이 젊은이는 마침내 좌절과 실의에 잠기게 되었고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종교적 내지는 영적인 일체의 영역에서 절단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그는 자기 감정과 순종해야 한다는 의지의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고 자기의 생활을 겨우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몸 무게가 정상보다 좀 무거운 편인 신혼의 신부가 남편에게 사사건건 반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자기의 살이찌 뚱뚱한 몸매를 증오했다. 그녀는 살을 빼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방편을 연구하였고 여러가지 식이요법도 시도해 보았지만 그것이 효과를 거두게 되지 못했다. 그녀는 자기의 몸매를 예쁘게 바로 잡는데 필요한 방편을 스스로는 강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늘 자기의 뚱뚱한 몸집을 지적하고 음식을 줄여 보라는 권고를 계속해서 자기에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그녀의 입에서 듣고 나는 왜 그녀가 남편에게 반발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어쨌든 그녀는 남편에게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내가 남편을 위해 몸무게를 줄인다면 쓸개 빠진 여자”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다. 많은 뚱뚱보의 위 “맨발로 돌뿌리 차기”란 속담을 이런 종류의 권위에서의 반발과 비교하면 그대로 연결이 된다. 윗 사람이나 부모가 어떤 행위를 금한다고 하여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아가 노여움으로 대하게 된다면 결국

손해는 자기가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이토록 힘든 것은 흔히 제재를 당하는 편이 행위가 잘못되지 않고 정당하다는 사실이다.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예를 들면, 자동차를 빼앗는 아버지—상대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젊은이들 중에는 손 위 사람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끝내 그 방법을 체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하여 저들은 날로 거칠어지고 계속해서 화를 내게 되며 자기들의 종교나 하나님, 자기들의 배우자, 자기들의 직업,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까지 반발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같은 상태에서 만신창이의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참으로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의 과제 즉 많은 젊은이에게 부딪친 문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라고 하는 하나의 위기 의식이다. 몇년 전, 유타 대학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당

신은 열등감을 가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더니 대답의 93퍼센트가 “예”라고 나왔고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열등감의 굴레 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 하겠다.

필자는 아주 귀엽게 생긴 십 팔 구 세의 말일성도 소녀를 접견한 일이 있었다. 그녀는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많고 알콜 중독자요 여자에 대한 태도가 형편없고 예의도 차릴 줄 모르고 성병까지 가진 남자와 교제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의 주변 친구와 가족들은 그녀가 그와같은 남자와 교제를 하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여 그녀로 하여금 카운셀링을 구하도록 한 것이다. 그 남자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당장에 “아, 아뇨!”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럼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아니오, 오히려 무서워요.”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런데도 왜 그런 남자와 교제를 계속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힘 없는 소리로 꺼질듯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나같은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녀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은 그야말로 형편없어서 자기를 그 이상 대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하잘것 없는”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결국은 “하잘것없는” 사람과 결혼하고 말 것이며, 자기와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불행한 그림자를 씌우게 한다.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인생을 살면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유혹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영향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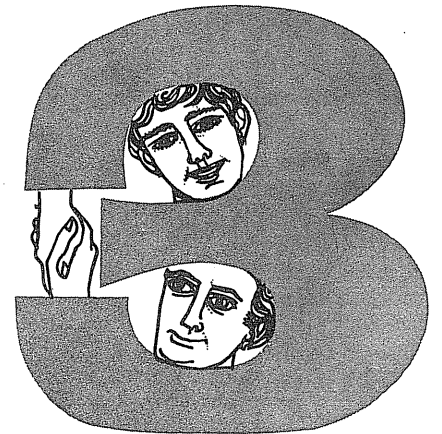
젊은 사람들이 마약이나 술을 사용하고 자기들에게 크게 해로운 행위에 휩쓸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저들이 동년배 구룹 영향력을 무시해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사람도 있다.

마약을 사용하는 어떤 말일성도 청소년은 “뭘, 지혜의 말씀에는 마약이 해로운 것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며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이었다. 얼마후에 그는 술도 자주 마신다고 실토했으며 그것을 정당화하는 자기대로의 변명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고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이나 히피 생활에 발을 들여놓게 될 때 대개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동료로서 받아들일 때 기분이 좋아서 그대로 빠져 버리고 마는 경향이 있다. 전혀 자기들은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이다. 머리가 아무리 길어도, 옷이 아무리 더럽고 또 몸이 더러워 냄새가 나도 저들은 자기들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그밖에도 자기들의 행동이나 마약이나 성희의 작란도 탓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젊은이는 해방된 자유를 만끽하고 기성 세대에 저항하고 기독교적 도덕 표면에 대항한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저들은 진실로 저들이 새로 받아들인 삶이 저들이 던져 버린 삶보다 자기들에게 더욱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마약을 사용하는 세계에서는 남에 대한 충실, 사랑, 희생, 임무 수행, 정결, 인내 등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므

로써 자기패락을 추구하는 삶이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는 남에게 열 마든지 결례를 범하는 세계인 것이다. 또한 그것은 자유의 삶이 아닌 속박의 삶이다. 저들이 부르짖는 자유는 사실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불행스럽게도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스스로를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쉽게 자기들을 친절히 받아들이고 탓하지 않으며 자기 중심의 새 생활을 약속하는 마약의 굴레에 빠져 들어간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요 그물이다—결리면 영적인 사망을 당하게 되며 많은 젊은이가 육체적인 사망을 당한다. 이들을 치료하는 전문가들이 쓰라린 사실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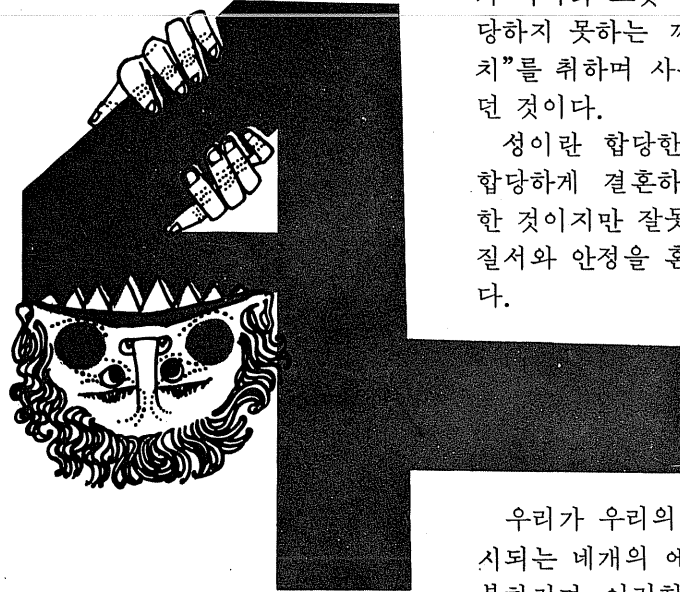


세번째 과제는 어떻게 남과 “유대”를 갖느냐 하는 문제다. 여기에는 물론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결혼 상대자와의 관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과의 관계, 동리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의 관계를 포함한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유대를 나누며 살아야 하느냐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

요한 일인 것이다. 이 작업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하고 또 그들의 사랑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만 있다면 메마른 이 사회가 요구하고 갈구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를 나누지 못할 때 사회적인 발전 및 정서적인 영적인 발전은 크게 방해받게 된다.

얼마전에 오년 전에 남편을 잃은 아름다운 여인의 장례식이 거행된 일이 있다. 일곱 자녀가 모두 그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어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애뜻하게 했다. 그런데 이틀 후에는 자녀들이 모두 그 망모의 집이었던 텅빈 가옥에 모여 얼마 안되는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를 놓고 분주했다. 마침내 딸 둘은 불과 몇 천원 상당의 낡은 소파를 누가 가져야 옳겠느냐고 언쟁을 했던 것이다. 저들은 서로 상대를 비난했고 마침내는 그것이 싸움으로 번졌다. 어머니의 유물 분배를 놓고 저들은 어리서 배우지 못한 원만한 타인과의 유대의 과제를 어쩔 수 없이 추한 모습으로 재노출시킨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는 여인도 있다. 그녀에게는 상대를 고무시키고 일으켜 세우며 가진 가능성을 개발시키고 최선을 다하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녀와 함께하면 풍요함을 얻고 감사함을 느낀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그녀에게는 친구가 많고 또 그 많은 친구의 사랑을 받는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의 유대를 원만하게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가졌던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자제의 노력이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드라고 하기도 하고 충동 내지는 부담스런 본성이라고도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호랑이”와의 갈등을 갖는다. 격한 감정, 식욕, 그리고 성욕, 탐욕, 시기 등과 같은 속된 성품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충동과 욕구를 다스릴 수 있다면 인간의 영적인 본체(에고)는 인간으로의 자기 길을 영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붕괴하여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고 미래나 미래의 꿈은 한 조각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투쟁의 원리이다. 내가 아는 20세 청년의 예를 보면, 그는 헤로인에 중독이 되어 결국 눈물의 뉘우침을 갖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자유 의지

를 잃고 말았다. 헤로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 없이는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까닭에 계속해 “조치”를 취하며 사는 도리 밖에 없었던 것이다.

성이란 합당한 곳에서, 예컨대 합당하게 결혼하여 사용되면 훌륭한 것이지만 잘못 이용되거나 하면 질서와 안정을 혼란과 파괴로 이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달성하고 제시되는 네개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면 이러한 목표가 있으니까 라는 이유보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의를 가져야 한다. 사람이 더 큰 이쁨을 위해서 목전의 욕심을 참을 수 없으려면 오랜 훈련과 결심이 있어야 한다. 확고 부동한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는 바라건대는 사랑과 자비가 펼쳐지는 사망 이후의 의로운 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목표일 것을 믿고 싶다. 비틀거리는 자를 부축해야 하며 사악한 세상의 죄와 암흑의 사자의 꾀에 빠진자를 우리는 도와야 한다.

천국에서라도 우리가 홀로 있어야 한다면 결코 행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용기와 절제와 사랑과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불우하고 고독하며 소망과 위로를 필요로 하고 슬픔에 쌓여있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써 저들도 기쁨을 맛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인 것이다. ○

저들의 얼굴에 밝은 빛을

델라 매 라스무센



●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물어 보시라.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사람이 다 책을 손에 들지 않고 가르치는 교사가 더 훌륭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가치—교사가 책을 들여다 보면서 가르치는 것 보다는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 보며 가르치는 방법—은 특히 복음을 가르침에 있어서 말로 다할 수 없을만큼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대하는 반의 교사는 아마 책을 손에 들지 않고 가르치는 교사일 것이다. 곧 그러한 교사는 개인 개인의 우정과 열의와 학과에 대한 집착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손에 책을 든 교사에게 학생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관한 조사 통계가 나와 있다.

어떤 신권 소유자는 그의 신권회 교사를 가리켜, “그 분은 나의 좋은 친구죠, 아주 좋은 분이예요. 그

분은 신권 정원회의 교사를 오래 했지만 제발 공과 준비를 착실히 해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손에 공과책이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도대체 그분이 이 공과를 재미있게 진행하겠다는 소망을 가졌을까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상호 부조회 자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반 지도자는 거의 매번 그저 공과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저 보다는 훨씬 훌륭하군요”라고 말하여 자기의 입장을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사로 하여금 따뜻하고 다정한 음성과 친절할 눈을 갖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책의 인쇄는 사람의 손이 만들어 낸다. 어느 편이 더 훌륭하겠는가.

열 다섯 먹은 어떤 소년이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했다. “난 주일 학교에 안가요. 그냥 개회만 하고 집에 오지요. 공과반에 들어가야 배우는게 없어요. 우리 교사님은 공과

책으로 얼굴을 딱 가리고는 우리가 질문을 할까봐 겁이 난 모습인 걸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일곱 살짜리도 있다. “저 나는 선생님이 책을 읽는 동안 조용하게 앉아 있으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막 떠들어요. 그럼 또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전부 복도로 내 쫓아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교회 공과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교사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진지한 공과를 갖고 싶어 한다.

학생과 얼굴을 맞대고 공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공과에 소개되는 복음 원리와 그 응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반에서 공과를 진행할 때에는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진지하게 공과의 내용에 담긴 이념을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공과와 관련이 없는 객적은 이야기를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공과 내용을 충분히 준비 하라는 뜻이다.

때는 바야흐로 개인 개인의 대인 교동이 요구되는 시대다.

잘 준비하여 책에 의존하지 않고 공과를 진행한 교사가 과연 무엇을 전하였을까?

나는 준비 했노라.

나는 확신을 갖고 임한다.

나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 가 되어 있다.

나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긴다.

나는 공과 내용을 안다.

나는 여러분과 섞이고 싶다.

나는 여러분의 참여에 대단한 흥미를 갖는다.

나는 헌신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자 한다.

사람들은 매일 매일 친구나 아는 사람과 눈으로 마주 보며 서로의 우정을 즐긴다. 저들은 마주 보면서 상대가 자기를 인정해 주고 있고 자기의 의사와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

교실을 떠나서도 얼굴을 마주 보고 가르치는 방법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가정의 밤을 아주 재미 없게 진행하려면 가정의 밤 교재를 꺼내 놓고 한자한자 읽으면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부모가 많다. 철저한 공과 준비와 눈과 눈으로 마주 보며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얼굴을 마주하고 가르친다는 방법이 결코 새로운 교수법은 아닌 것이다. 구세주께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가르치셨으니 그분은 따르는 무리를 가까이 부르신 다음 눈과 눈을,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놓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마 1902년 이라고 기억 되는데 학생들을 확실히 파악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공과책에 얽매이지 말라고 교사들에게 권고한 일이 있다. (칠드런스 후랜드 제 1권 188페이지)

수천명의 헌신적인 선생님들은 눈과 눈의 교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선생님들은 이 방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 선생님은 이렇게 기록하셨다. “내가 왜 진작 이 방법을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방법을 채택한 이래 우리 반 학생들은 나 만큼이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내겐 참으로 감격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내게 와서 공과가 얼마나 재미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다음에는 친구를 데려 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내가 보다 창의적이어야 하고 공과 준비에 시간을 더 써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종이 울리자 나의 다루기 어려운 학생 하나가 ‘제발 저종이 공과 끝을 알리는 종이 아니었으면’이라고 했을 때 나는 보람을 느꼈지요. 오늘 공과는 참 잘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계시다.

아론신권 담당 교사 한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뭘 그렇게 생각했던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학생들은 관심을 가져 주었고 바로 공과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아마 너무 불안해서 전적으로 공과책에 의지했나 봅니다”

눈과 눈의 방법은 어느 연령층의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방법이다. 싫증나는 태도로 교사가 가르치는 경우라도 매주 열심히 나와 공과에 귀를 기울이는 성인이 있겠지만 공과 진행의 방법이 개선될 때 저들은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이와같이 얼굴을 마주 보며 가르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인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에는 구태연한 방법을 고집하는 교사가 하나 둘이 아닌 것 같다.

어떤 자매는 자기는 이미 만족할 만한 교사이며 그러한 새로운 제의에 자유의지의 박탈을 강요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어떤 교사는 공과책을 사용하지 않고 메모를 해온다는 것은 시간의 낭비라고 필적된다. 그러나 어쨌든

저들도 이야기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트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수긍한다.

눈과 눈의 방법을 거절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 방법을 아예 시험해 보지도 않았거나 이 방법이 종전의 방법보다 별로 신통치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 버린 사람들이다. 이 방법을 탐탁하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채택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를 오히려 기대하며 자기들의 예언이 적중했다고 기뻐한다.

물론 오랜만에 한번쯤은 단정한 태도와 훌륭한 목소리를 가진 교사는 전공과를 읽든가 공과의 거의 대부분을 읽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도 학생들이 싫증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사가 스스로를 뛰어난 기술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전에 정직한 마음으로 공과책을 손에 들고 가르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를 물어보게 하라!

공과책을 읽어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때도 있으니 예를 들어서 경전구절을 읽어 준다든가 작은 사건의 경위를 읽어 준다든가 극히 효율적인 잘 다듬어진 문장을 읽어 주는 일 등일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공과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눈과 눈을 마주보는 방법으로 교사가 공과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인가? 몸에 밴 오랜 관습을 떼어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시간을 더 들여 공과 준비를 한다는 것 그것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일이 아닌 것이다. 공과책을 손에 들지 않고 가르치자면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복음을 가르치는 일로 주께 봉사하노라면 마음의 만족과 화평을 허가받을 것이다.

○

나의 음성이 울리리

아이리스 신더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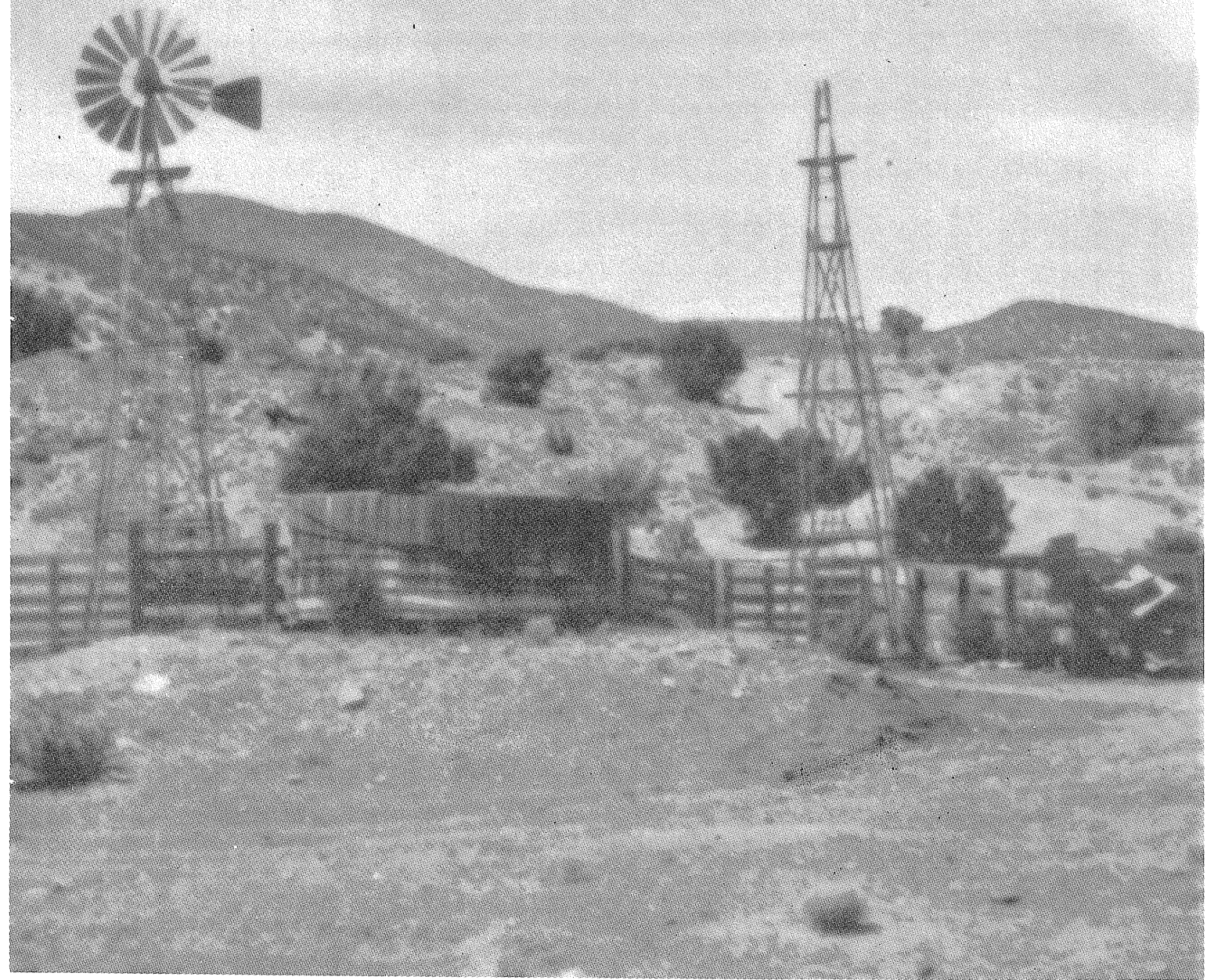
● 자동차가 몇자 수백개의 회상의 그림자가 칼 이스톤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발아래 펼쳐진 넓은 계곡으로 강물이 여러 줄기 지나고 멀리 검푸른 산이 보이는 밑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저 마을을 살살이 뒤지고 지났지” 칼은 마음이 흐뭇해 졌다.

꾸부러진 길을 따라 마을로 향해 차를 몰면서 그는 그가 처음으로

19년 동안 정들여 살던 고향에서 그리 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뉴 멕시코에 대해서 실망했던 일을 기억해 냈다.

그는 정말 이만 저만 실망한게 아니었다. 선교사의 부름이 있기를 고대하면서 그는 멀고 먼 나라에 여행하게 되기를 바랐고 그의 조상



의 땅인 구라파의 여러 나라나 꿈이 많은 남미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결국은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된 것이다.

칼은 즐거운 마음으로 부름에 응하려 했지만 삼백여명이 참석했던 그의 환송 모임에 나가 앉아 형제 자매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찬송가를 들을 때까지는 통 실감이 나지를 았았었다. 칼은 꼭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것만 같았던 찬송가의 처음 두 구절을 늘 기억했다.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높은 산 바다나 전쟁터 아닐지 난 모르나

내 모르는 좁은 길 가라는 주 음성 내게 들릴 때

사랑하는 주여 원하시는 곳

가오리다 대답하리”

(주께서 날 보내기 원하심)

그 이후로 칼은 보다 겸손한 자세로 선교 사업에 임하였다. 그는 곧 익숙할 것이라고 믿었던 뉴멕시코 땅과 주민이 마치 대양을 사이에 둔 먼 나라 같이 낯설고 을씨년스러웠다.

더군다나 이곳 사람들은 칼과 칼이 가져 온 메시지를 이상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달갑지 않다고

까지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와 그의 동반자는 악전 고투를 계속해야 했다. 저들이 가가 호호 방문을 할 때면 사정없이 문을 닫아 버렸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팠던 것은 이곳 주민들이 전혀 선교사나 선교사의 메시지에 흥미를 가져주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천천히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칼이나 그의 동반자는 그 이후로도 기쁘게 복음의 소식을 받아 들이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

선교사 근무를 약 두 달 남겨 놓고 하루는 칼이 주유소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걸레로 차를 닦아내자 칼은 지친 음성으로 “물론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키가 작고 검은색 피부를 한 그 사람은 미소를 담고 “아주 조금 알지요”라고 대답했다.

칼은 계속했다.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처음 모임부터 칼 이스턴 장로는 유쾌한 성품의 이 남자를 좋아했다. 그는 디에고 산체스라는 사람으로 독신이었고 빈촌에 살고 있었으나

집은 정결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그의 집에서 복음 공부를 했고 그는 열심히 선교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지켜야 할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그는 크게 웃으면서 “나는 그렇게는 희생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맹렬하게 손을 내젓고는 “나의 꿈방대, 내 술잔, 그것이 나의 종교입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칼은 또 그가 감명깊게 들었던 찬송가를 기억했다.

칼은 대단한 끈기와 인내로 디에고 산체스의 집을 거듭 거듭 방문하였고 엄격한 복음의 표준을 도저히 지키지 못하겠다는 그를 설득해 갔다.

그러다가 마침내 칼이 선교사를 끝내기 일주일 전 그 남자를 침례의 물로 인도할 수 있었고 그 순간에 그는 인생의 길을 새로 밟은 것이었다. 그 침례야 말로 칼 이스턴 장로가 이년 동안의 선교 끝에 성취한 유일의 침례였던 것이다.

여러 해를 두고 칼 이스턴은 슬픈 이년 동안의 선교사 생활을 돌아 보았고 완전히 자기는 세월을 허송한 어찌지 못할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때로부터 구년이 지난 지금 그는 직장의 일로 이년 동안 선교사업을 하던 이 땅을 찾게 된 것이다. 그는 디에고 산체스에게 편지를 띄웠고 즉시 정이 넘치는 회신을 받았다. 디에고는 지금은 지부장이 되어 있었고 칼이 방문하는 때를 기하여 성착식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계획했다.

칼이 그곳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는 그 지역에 지부가 없었다. 그렇지만 칼은 쉽게 교회를 찾아 갔다.

그는 먼지나는 목화밭을 지나 자동차가 여러대 주차한 건물 앞에 다달았다.

막 자동차 문을 닫으려는데 반가워하는 고향 소리가 들렸다. “이스턴, 이스턴 장로님!” 디에고 산체스가 달려왔다.

칼은 디에고의 얼굴에서 지나친 연륜의 그림자를 보았다. 검던 머리가 조금 거칠어지고 허리에 살이 좀 붙었을 뿐 칼이 기억하던 그 즐거운 모습의 디에고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디에고는 그 손은 아랑곳 없이 달려와 두 팔로 칼을 얼싸 안았다. “아, 칼 장로. 나의 친구” 그는 그렇게 칼을 안고

손으로 등을 두들겼다. “다시 만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디에고의 갈색 뺨으로 굵은 눈물이 주루룩 흘러 내렸다. “우선 들어 갑시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디에고는 칼의 손을 굳게 잡고 자못 흥분해서 사람들이 서 있는 곳으로 나갔다.

“이스턴 장로님” 디에고는 어떤 미녀의 손을 잡으며 그를 불렀다.

“아내 와니타입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는 칼을 다시 앞으로 인도했다. “부모님 이십니다. 이분은 사촌이고 페드로, 이분도 역시 사촌 누이, 로메로 모두 장로 신권 소유자입니다. 사촌 에드워드는 집사죠. 이분은 아주머니시고 이분은 삼촌……”

칼은 그 소개를 받으면서 가슴이 메어오는 것은 느꼈다. 칼은 디에고를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며 저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대한다는 환희에 차 있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디에고의 가까운 친구요 친척이라는 사실을 곧 알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의 인사 소개가 끝나자 칼은 “디에고 이 분들이 모두 디에고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 겁니까?”라고 물었다.

디에고는 고개를 좌우로 설래 설

래 흔들었다.

“아닙니다. 이스턴 장로. 나 때문에 라니요. 그런데 아니고 모두 이스턴 장로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가져 온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거절하는데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디에고는 다시 칼의 어깨를 싸 안았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내게 전한 메시지를 전한 것 뿐입니다”

칼은 회중 앞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 보며 저들의 눈에 감사와 사랑이 담긴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자기의 불우했던 선교사 시절과 단 하나라고 생각했던 침례로 인해서 이제는 작은 예배당을 채울 수 있는 인원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다.

목으로 커다란 눈물 덩이를 삼키고 칼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그곳 성도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의 끝 머리를 선사했다.

“오 주여 어둡고 험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사자되어 말씀 전하리니
하라신 대로 말하리”

○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선교부장 부라운

●우리는 모두 이 훌륭한 찬송가를 즐겨 불러 왔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깊이 감동되어 이렇게 되뇌이고는 합니다.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나의 가족이 있기에 세상은 살기에 아름답고 의미있는 곳이다.” 행복한 가정은 세상을 행복한 장소로 만들어 줍니다.

특별히 고된 일로 시달리거나 기분이 언짢을 때라도 집을 찾아 처와 아이들을 대하면 곧 평온으로 되돌아 갑니다. 데이비드 오우 벅케이 대관장님은 우리는 행복한 가정에서 이 지상에 세워진 작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일성도 가정을 만들어 그 속에 깃든 화평과 행복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해의 영광의 왕국을 아주 조금이지만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31편 1-4절을 통하여 결혼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해의 영광에는 세 하늘 곧 세가지 등급이 있느니라.

사람이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는 이 신권의 반차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말함)에 참여해야 하느니라. 만일 참여하지 못하면 이를 얻을 수 없느니라. 저가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있으려니와 이는 저의 왕국의 마지막이니 저는 증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이 계시에서 해의 영광에만도 세 하늘 곧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해의 영광에서의 제일 높은 등급에 이르러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에 들어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신전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는 가족이 함께 해의 영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살면서 계속하여 자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구세주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말일성도의 가정에는 해의 영광에서의 가족 조직의 처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우리는 해의 영광에서 완전하게 맛볼 만족과 희열의 일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가족을 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장차 해의 영광에서 함께 살 가족을 굳게 만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밤”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 기도를 권고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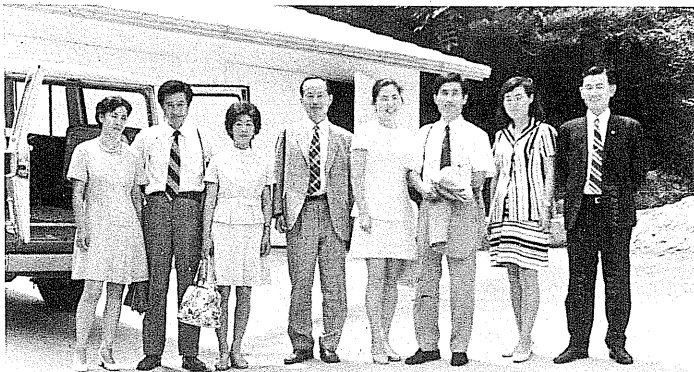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말일성도 가정은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조직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이 해의 영광의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없어지고 모든 정부, 교회, 그 밖의 모든 조직이 다 사라져도 의로운 가정은 끝없이 살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가 계획하여야 할 위대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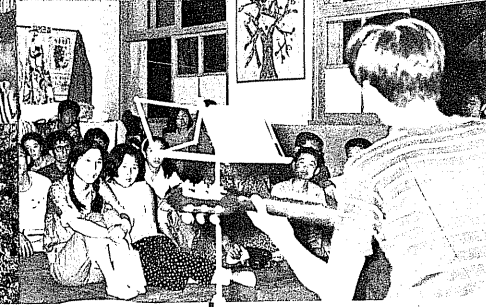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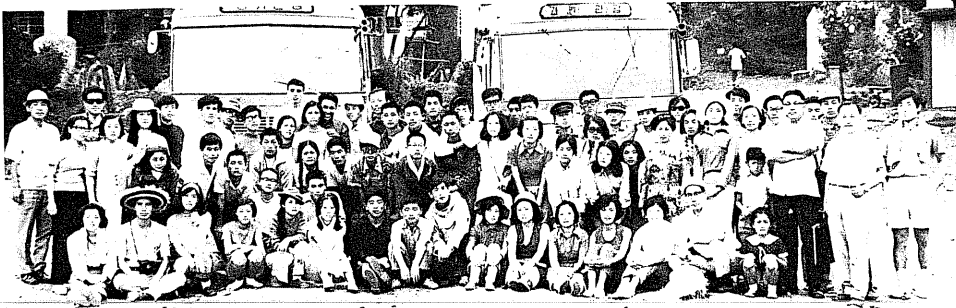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6/4	윤정양	27	남	부부	6/19	김재분	18	여	수원	7/3	조용선	32	남	영등포
"	"	17	여	부부	6/21	조정요	22	여	전주	"	"	32	남	영등포
6/5	정순도	24	남	주부	"	박영지	22	여	전주	7/10	유규희	25	남	영등포
"	김정수	28	남	주부	6/24	홍지광	19	남	전주	"	"	30	남	영등포
"	원영웅	16	여	광인	"	김순자	23	남	전주	7/16	김영정	18	남	영등포
"	강민선	32	여	인인	"	오정환	29	여	전주	"	"	17	남	영등포
"	신경수	19	남	인인	"	정홍자	19	여	전주	"	"	18	남	영등포
"	이진수	18	남	인인	"	김영희	31	여	전주	"	"	16	남	영등포
"	김지연	25	여	부부	6/25	김대은	-	여	전주	"	"	17	남	영등포
"	한지용	15	여	부부	"	김종수	-	여	전주	7/17	박희호	45	여	영등포
"	한해균	44	여	부부	"	김정인	19	남	전주	"	"	24	남	영등포
"	오손기	25	여	부부	6/26	김정수	21	남	전주	"	"	24	남	영등포
"	"	27	여	부부	6/28	김정희	16	남	전주	"	"	35	남	영등포
"	"	18	여	부부	"	김정미	16	남	전주	"	"	35	남	영등포
"	"	20	남	부부	7/2	박선진	22	남	전주	"	"	8	남	영등포
"	"	13	여	부부	"	김손기	19	남	전주	"	"	18	남	영등포
6/19	김경희	20	여	부부	6/26	김강나	16	남	전주	"	"	20	남	영등포
"	김영정	15	여	부부	6/28	최희미	19	여	전주	7/24	연지성	22	남	영등포
"	김우현	24	여	부부	"	최병영	17	여	전주	"	"	17	남	영등포
"	김태훈	14	여	부부	7/2	최환주	13	남	전주	"	"	39	남	영등포
"	김우현	40	남	부부	"	최환주	12	남	전주	"	"	30	남	영등포
"	김우현	23	남	부부	"	최환주	17	남	전주	"	"	12	남	영등포
"	김우현	25	남	부부	"	최환주	16	남	전주	"	"	15	남	영등포
"	김우현	20	남	부부	7/3	최환주	24	남	전주	"	"	9	남	영등포
"	김우현	13	남	부부	"	최환주	20	남	전주	"	"	9	남	영등포
"	김우현	22	남	부부	"	최환주	35	남	전주	"	"	14	남	영등포
"	김우현	-	남	부부	"	최환주	22	남	전주	7/25	장효자	27	남	영등포
"	김우현	20	남	부부	"	최환주	16	남	전주	"	"	18	남	영등포
"	김우현	23	남	부부	"	최환주	12	남	전주	7/31	김오성	22	남	영등포
"	김우현	30	남	부부	"	최환주	9	남	전주	"	"	22	남	영등포
"	김우현	45	남	부부	"	최환주	20	남	전주	"	"	-	남	영등포
"	김우현	16	남	부부	"	최환주	20	남	전주	"	"	12	남	영등포
"	김우현	54	남	부부	"	최환주	23	남	전주	"	"	46	남	영등포
"	김우현	37	남	부부	"	최환주	15	남	전주	"	"	23	남	영등포
"	김우현	14	남	부부	"	최환주	21	남	전주	"	"	16	남	영등포
"	김우현	12	남	부부	"	최환주	22	남	전주	"	"	20	남	영등포
"	김우현	9	남	부부	"	최환주	24	남	전주	"	"	"	남	영등포
"	김우현	29	남	부부	"	최환주	21	남	전주	"	"	"	남	영등포
"	김우현	59	남	부부	"	최환주	21	남	전주	"	"	"	남	영등포

두번째의 신전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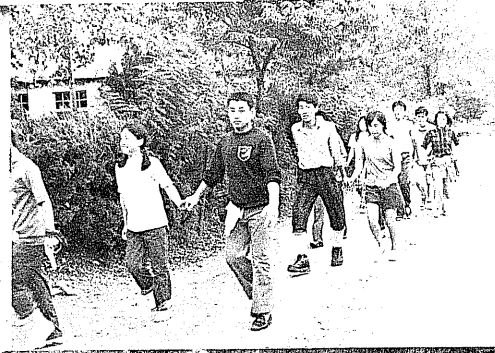
한국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두번째 신전 방문에 참가하게 된 8명(4쌍의 부부)이 지난 7월 27일 하와이로 출발하여 8월 10일경 무사히 귀국하였다. 일본 성도 171명과 함께 전세기로 출발한 이들은 하와이 신전에서 의식을 받고 귀로에는 일본 성도들과 교회에 관한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하와이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성도 이정현, 장병훈, 황충열, 이태문형제와 귀환 선교사 부렛사, 라스탑스, 스카운 장로들과 전임 슬로버 선교부장 가족의 안부를 갖고 온 이들은 이번 신전 방문은 일생에서 가장 감격의 벅찬 순간이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신전을 방문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상호(청운 지부장), 민동근(동중앙평의원), 윤화중(대전지부장), 홍범식(전주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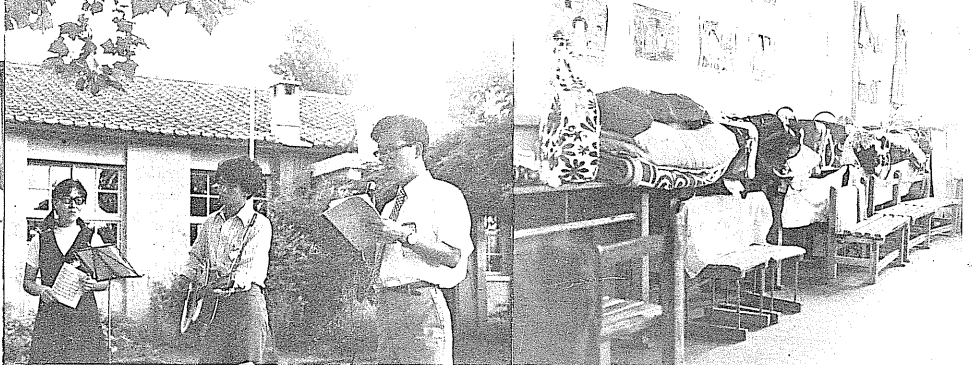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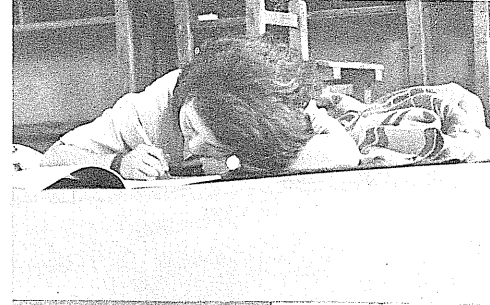




청소년 대회

청소년들에게 공동생활을 통하여 협조와 지도 능력을 배양하고 사고적인 경험을 갖게 하며 복음에 대한 간증을 길러주기 위한 청소년 대회가 각 지방부별로 7월 27일부터 8월 19일 사이에 있었다. 3회 대회까지 선교부에서 주관하던 것을 올해부터 각 지방부 별로 갖게 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준비나 진행에 참여하도록 했던 올해의 대회는 남부와 서중앙 지방부가 부산에서 두 시간 거리인 동해안의 월래와 서울 근교 일영의 삼상 국민학교에서 27일과 28일에, 동중앙 지방부는 8월 16일부터 인천 청학골에서 80명에서 120명의 규모로 있었다. 3박 4일로 각 지방부 상향회 역원들이 계획과 활동에 참여하여 한달여를 현지 답사와 준비 기간으로 보낸 올해의 청소년 대회는 어느 때 보다도 활동과 진행면에서 짜임새 있는 것이었다. 수영장이나 바다의 인근으로 자리를 잡은 올해의 활동은 “젊음과 형제애”란 단어로 집약할 수 있으리라. 호남 지방부는 올해의 청소년 대회를 쉬었다.







대학



대학 대항 운동경기